

한국수출산업에 있어서의 임금, 임금구조 및 노동시간

조 우 현*

〈目 次〉

- | | |
|-------------------|-----------------------------|
| I. 머 리 말 | VI. 임금상승율과 부가가치노동생산성
상승율 |
| II. 사용된 자료 및 그 특성 | VII. 수출산업과 임금구조 |
| III. 수출산업과 그 특징 | VIII. 수출산업과 연령별 임금격차 |
| IV. 수출산업의 임금수준 | IX. 수출산업의 노동시간 |
| V. 수출산업의 저임금계층 | X. 맺 는 말 |

I. 머 리 말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나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슈(issue)는 수출주도형 산업화가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하는 점일 것이다.

수출주도형 산업화와 근로자의 후생과의 관계에 관해서 이론적인 몇가지 논의가 있을 뿐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에 있다.¹⁾

필자는 우리나라 제조업을 내수산업, 내수위주산업, 수출위주산업, 수출산업으로 나누어 수출산업 및 수출위주산업의 임금, 임금구조 및 노동시간 등을 여러 산업과 1986년과 1987년 양 년도에 걸쳐 비교 검토함으로써 수출주도형 산업화가 노동자의 후생을 증진시켰는지 여부에 관한 분석을 하게 될 것이다.

*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 및 경제학과 부교수

이 논문은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의 1987년 연구비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하였음.

Ⅱ. 사용된 자료 및 그 특성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1987년과 1988년의 노사분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단히 독특한 자료를 만들었는데²⁾ 필자의 분석은 이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으므로 더 나아가기 전에 이 자료에 대해 간결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노동부의 최저임금심의회의는 1987년 3월 5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35,439개소와 1988년 1월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5,005개소의 기업경영 및 근로자임금실태조사를 행한 바 있다. '87년 3월 조사는 1986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기업정보 및 근로자임금실태를 기록하였으므로 앞으로 86년 자료라고 부르겠고 88년 1월 조사는 87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정보를 기록하였으므로 앞으로 87년 자료라고 부르겠다. 한국노동연구원은 87년 자료에 나타난 기업체로서 86년 자료에도 나타나는 기업체 약 4,000개 업체를 추출하여 4,000개 기업의 86년 자료와 87년 자료를 연결하였다.

이들 4,000개 업체를 토대로 332개 기업이 표본으로 추출되었고 노동연구원은 추출된 33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노동연구원의 조사에서 수집된 88년 기업정보를 다시 86년 자료와 87년 자료에 연결하여 만들어진 자료를 이제부터는「86-87-88 기업체자료」라고 부르겠다. 「86-87-88 기업체자료」에는 311개³⁾의 동일한 기업에 대해 3개년에 걸친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332개 기업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심의회의의 근로자조사테이프에서 추출되었는데 311개 기업에 속한 근로자수는 86년에는 102,254명이었고 87년에는 105,920명이었다. 앞으로 86년의 102,254명에 대한 근로자 개인자료를 「86년 근로자자료」라고 부르겠고 87년 105,920명에 관한 근로자 개인자료를 「87년 근로자자료」라고 부르겠다.

「86년 근로자자료」와 「87년 근로자자료」에는 개인의 성, 혼인상태, 연령, 학력, 직종, 근로시간, 임금 등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으며, 노동부의 직종별임금조사와 거의 유사한 개인근로자정보가 담겨져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86년의 조사대상근로자와 87년의 조사대상근로자는 노동부가 정한 일정한 추출방법에 의해 추출되므로 서로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즉 동일한 332개 기업에 속한 86년 근로자와 87년 근로자들은 표본추출된 자이므로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다.

요약하자면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86-87-88 기업체자료」와 「86년 근로자자료」 및 「87년 근로자자료」이다.

Ⅲ. 수출산업과 그 특징

이 연구에서는 1987년의 기업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수출액의 비중(수출율)을 근거로 하여 수출율이 0%에서 20%이하의 기업을 내수산업으로 분류하였고 수출율이 21%에서 49%, 50%에서 79%, 80%에서 100%에 이르는 기업을 각각 내수위주산업, 수출위주산업 그리고 수출산업으로 분류하였다.

내수산업에 속하는 기업은 311개 기업중에 118개 기업, 내수위주산업, 수출위주산업, 수출산업은 각각 47개, 45개, 101개 기업이다. 즉 조사대상기업 311개 기업 중 내수산업, 내수위주산업, 수출위주산업 그리고 수출산업의 비중이 각각 37.9%, 15.1%, 14.5%, 32.5%이다.

수출위주산업 및 수출산업의 특성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각 산업에 있어서 남성의 비중, 혼인자의 비중 및 비가구주의 비중, 평균나이는 인구학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학력, 직종 그리고 경력 및 경력년수는 인적자본속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기업과 경공업에 속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기업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은 311개의 동일한 기업의 86년과 87년 근로자자료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표 1>의 86년 인구학적 특성, 인적자본속성, 기업특성을 내수, 내수위주, 수출위주, 수출산업 별로 살펴보겠다.

우선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수출위주산업과 수출산업은 젊은 여성으로써 단신의 비가구주가 많다는 것이 두드러진다. 특히 수출산업은 여성의 비중이 59.4%, 미혼단신자가 66.3%, 비가구주가 71.7%에 달하고 있다. 86년 전체 평균은 여성의 비중이 39.2%, 미혼단신자의 비중이 53%, 비가구주의 비중이 55.6%임을 감안하면 수출산업의 여성, 미혼자, 비가구주의 비중은 대단히 높다. 평균나이에 있어서도 86년 전체 평균이 28.6세, 내수산업, 내수위주산업의 그것이 30.6세와 29.8세 인데 비해 수출산업은 26.4세로 가장 낮아 수출산업은 젊은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인적자본속성측면을 살펴보면 수출산업은 저학력, 낮은 근속년수의 미숙련생산직 노동자에 의해 특징지워지고 있다.

평균근속년수는 수출산업은 2.7년이며 반면에 내수산업과 내수위주산업 및 수출위주산업은 4.6년, 4.3년, 3.8년으로서 수출산업의 근속년수는 가장 낮다. 학력은 수출산업의 중졸이하의 비중이 46.3%로써 내수, 내수위주 및 수출위주산업의 34.1%, 33.1%, 41.8%보다 크게 높으며 대졸자의 비중은 수출산업이 가장 낮다. 생산직(여기서 생

산직은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직접근로자와 생산공정을 보조하는 간접근로자임)의 비중은 수출산업이 87.8%로서 내수, 내수위주 및 수출위주산업의 66.7%, 66.1%, 80% 보다 높다. 사무직의 비중(여기서 사무직은 서어비스직을 제외하고 전문, 기술 및 관련직, 관리직, 사무직 및 판매직으로 구성되어 있다)은 수출산업이 10.7%로 가장 낮다.

인구학적 특성과 인적자본속성의 특성에서 거의 예외없이 나타나는 점은 수출율이 높을수록 즉 수출위주산업과 수출산업일수록 여성의 비중, 단신미혼자, 비가구주, 중졸자, 생산직의 비중이 높아지고 나이, 경력 및 근속년수, 고학력자, 사무직의 비중은 낮아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업특성을 나타내는 대기업에 속하는 근로자와 경공업에 속하는 근로자의 비중에 있어서는 수출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은 관찰되고 있지 않다. (〈표 1〉참조)

기업에서의 노동조합 조직여부,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정도, 그리고 노사분규의 발생여부 또한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구체적으로 기업의 노사관계적 특성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에서 1987년 7월~9월까지 대규모의 노사분규를 경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및 조직율을 살펴보면 1987년 6.29 당시 조합원 105만명 추정조직율 14.3%였던 것이 1988년 12월 현재 조합원 170만 7천명, 추정조직율 22%로 되어 노동조합조직의 신장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단위조합 수는 1987년 6.29 이전에 2,725개에서 1988년말 현재 6,142개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조직율은 1975년 수준인 23%를 못미치고 있는데 이는 지난 12여년간에 걸쳐 노동조합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노동조합무력화정책이 있어왔던 결과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1986년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자의 초임수준, 장기근속자에 대한 대우, 학력별·직종별 임금격차 및 성별임금격차에 하등의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⁴⁾

1987년 6.29를 전환점으로 노동조합의 양적 성장은 이 연구에 이용된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의 양적성장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기업의 남자생산직노동자 그리고 중화학공업의 남자생산직노동자들이 대거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과 또한 남자 및 고졸이하의 하급사무직의 노조가입이 증대된 것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표 2〉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중화학공업에 있어서 생산직의 노조가입비율이 1986년에 33.9%, 경공업의 생산직의 노조가입비율이 42.5%였으나 1987년에는 전자가 59.9%, 후자가 51.4%로 되어 종전에는 경공업생산직 위주의 노조에서 중화학공업의 생산직 위

주의 노동조합으로 그 성격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사무직의 노조가입율은 남자고졸이하 사무직은 1986년 7.8%에서 1987년의 17.8%로 증가하였다.

노동자들의 노조가입비율을 내수, 내수위주, 수출위주 및 수출산업별로 살펴보기 위하여 <표 3>이 작성되었는데 86년에는 내수산업 근로자의 35.7%, 내수위주산업 근로자의 40.2%, 수출위주산업근로자의 43.8%, 수출산업근로자의 36.7%로써 수출위주산업과 내수위주산업에서 전체 평균 38.1%를 약간 상회하며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에서는 전체평균 38.1%를 약간 하회하고 있다. 따라서 1986년까지의 노동조합억압정책은 수출관련 산업 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걸쳐 자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1987년에 이르면 내수, 내수위주, 수출위주 및 수출산업에서 노조가입비율은 각각 52.1%, 59.5%, 69.3%, 46.3%로 수출위주산업의 노조조직신장이 가장 크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사분규 또한 수출위주산업에서 가장 심각히 발생하였는데 <표 4>에 의하면 87년도에 노사분규기업의 비율이 수출위주산업에서 65.7%로 내수위주산업의 66.6% 다음으로 높았다. 87년 노사분규의 광범위성은 우리의 자료에도 나타나는 바, 내수산업의 59.1%, 수출산업의 57.3%가 분규를 경험하였던 것이다.

1988년에 이르러서는 수출위주산업에서 노사분규가 난 기업의 비율이 31.5%로 가장 높았다. 88년 노사분규가 난 기업의 비율이 내수, 내수위주 및 수출산업에서는 19.3%, 28.8%, 23.5%였는데 87년보다 노사분규 발생빈도가 훨씬 낮아졌으나 88년도 여전히 상당한 노사분규가 국민경제전체에 있어서 일어났다고 하겠다.

노동조합에 노동자의 가입정도 및 노사분규 발생정도에 있어서는 상품의 판매시장별로 봐서 수출위주산업의 노조가입율, 노조신장율, 분규발생기업비율면에서 가장 부각되었다. 그렇지만 노조가입율, 노조신장율, 분규발생기업비율 면에서 87년과 88년은 전국민경제적인 공통성을 더 강하게 갖고 있었다고 하겠다.

Ⅳ. 수출산업의 임금수준

임금수준은 근로자의 인적자본속성 예컨대 성, 나이, 근속년수, 직종 그리고 학력 등에 의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임금에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는지 않는지 여부

에 의해서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임금수준을 비교할 때는 임금자체가 엄밀히 정의될 필요가 있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임금은(기본급+통상적 수당+기타수당+월간 보너스)로 정의되며 총임금은 위에서 정의된 임금에 초과근무와 관련된 초과급여를 합친 것으로 정의하겠다. 임금이라는 개념에 초과급여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87년 노사분규이후 감소되고 있는 노동시간으로 해서 발생하는 영향을 배제하는 데도 있지만 더 기본적으로는 정상 노동시간에 기초한 임금이 노동의 댓가를 정확히 반영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적자본속성의 차이가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성, 학력, 연령, 직종 등을 엄밀히 규정하여 비교적 동질적인 노동자라고 간주되는 노동자층을 추출하였다. 예컨대 이 연구에서는 남자 고졸 생산직으로써 20~24세 연령층 남자 고졸 사무직으로써 20~24세 연령층, 남자 대졸 사무직으로써 20~24세 연령층 등을 설정하였는데 이들은 비교적 동질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동일한 속성의 여성 생산직, 여성고졸사무직, 여성대졸사무직을 설정하였다. 이들 남성과 여성은 앞으로 단기근속의 젊은 노동자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단기근속의 젊은 노동자와 비교되는 계층인 장기근속자의 임금수준이 검토될 필요가 있겠는데 이를 위해 나이 35세~44세이며 근속년수가 5년이상인 고졸 남자생산직, 고졸 남자사무직, 대졸남자사무직이 설정되었고 이들을 장기근속자라고 앞으로 부르겠다.

<표 5>에는 단기근속의 젊은 노동자와 장기근속자의 임금수준이 내수, 내수위주, 수출위주 및 수출산업별로 나와 있다. <표 6>에는 내수산업의 임금수준은 100으로 했을 때의 내수위주, 수출위주 그리고 수출산업의 임금지수가 나와 있다. <표 5>와 <표 6>을 이용하여 수출산업의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1986년에 젊은 남자고졸생산직의 임금은 16만 6천원이며 내수산업의 임금 19만 3천원의 86%수준이다. 1987년에 수출산업에서 젊은 남자고졸생산직의 임금은 20만 7천원으로 내수산업의 임금 23만 9천원의 86.8%수준으로 크게 변동이 없다. 그러나 수출위주산업에서의 임금은 내수산업의 98.3%, 1987년에는 100.9%로써 내수산업의 임금에 대단히 근접해 있다.

젊은 남자대졸사무직의 경우 수출산업은 1986년 내수산업의 85.8%, 1987년에는 87.6%로써 젊은 고졸생산직과 마찬가지로 수출산업의 임금수준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젊은 고졸사무직의 경우는 약간 비규칙적인 추세를 보여주는데 1986년에는 수출산업이 내수산업의 1.2배 높은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1987년에는 내수산업의 86.1%에 불과하다.

젊은 여자의 경우는 고졸생산직은 86년에 수출산업의 임금은 15만 9천원으로 내수산업의 임금 15만 4천원 보다 3.2% 높고 1987년에는 내수산업보다 1.6% 높다. 젊은 여자 대졸사무직은 수출산업의 임금은 1986년에 내수산업의 77.7% 수준이며 1987년에는 77.8% 수준으로 크게 낮으며 젊은 여자 고졸사무직은 젊은 남자고졸사무직과 마찬가지로 非규칙적인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장기근속자의 경우는 대체로 수출산업의 임금이 내수산업, 내수위주산업 및 수출위주산업의 임금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임금수준의 측면에서는 젊은 남자고졸생산직 젊은 남자 대졸사무직, 젊은 여자 대졸사무직의 임금은 수출산업이 낮으며, 장기근속자와 여자생산직의 경우는 수출산업의 임금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된다.

이 때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출산업에서의 평균근속년수가 대단히 낮기 때문에 즉 수출산업에서 장기근속자로 살아남을 확률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수출산업에서 젊은 단기근속의 노동자가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기대임금은 수출산업은 여타 산업보다 크지 않을 것이 유의되어야 한다. 즉 장기근속자의 기대임금은 수출산업에 살아남을 확률×장기근속자의 임금이기 때문에 장기근속자의 현재의 임금이 조금 높다고 해서 장기근속자의 기대임금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이 될 것이다.

V. 수출산업의 저임금계층

Ⅳ에서 비교적 동질적이라고 할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비교가 되었는데 이제 각 산업 근로자를 고임금계층과 저임금계층으로 나누어 수출산업에 있어서 저임금계층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86년과 87년 양년도에 걸쳐 어떻게 변모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저임금계층이라는 것은 임금이 月 11만 4천원 미만의 근로자계층을 지칭하며 고임금계층은 月 11만 4천원 이상의 근로자계층을 뜻한다. 왜 11만 4천원을 기준으로 삼았는가? 88년 최저임금이 식료품, 섬유, 의복 등의 업종에서는 11만 1천원이었고 음료품, 담배, 화학 등의 업종에서는 11만 7천원이었는데 이 두 임금의 산술평균 11만 4천원을 본고에서는 기준으로 삼았다.

<표 7>에는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수산업, 내수위주산업, 수출위

주산업 그리고 수출산업의 저임금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매우 낮으며 이는 각각 8만 8천원, 9만 5천원, 9만 2천원, 9만 3천원이다. 내수산업의 저임금근로자계층의 평균임금이 가장 낮은 것이 특징적이다. 반면에 고임금근로자계층의 평균임금은 내수산업, 내수위주산업, 수출위주산업, 그리고 수출산업이 32만 5천원, 31만 6천원, 27만 7천원, 22만원이다. 고임금계층의 평균임금이 수출율이 높을수록 낮게 되고 있다. 그리하여 각 산업에 있어서 고임금계층과 저임금계층간의 양극화는 내수산업에서 가장 심각하게 되고 있으며 수출율이 높을수록 양극화는 줄어들며 임금수준자체가 낮아지고 있다.

특히 수출산업의 저임금근로자계층은 이 산업에 속한 근로자의 14.5%에 달하고 있어 여타 산업보다 저임금근로자계층이 광범위하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내수산업의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7.9%, 내수위주산업의 그것은 5.8%, 수출위주산업은 8.3%이었다.

1986년에는 수출산업에 있어서 저임금근로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수출산업에 있어서 중졸이하의 학력자가 많다든지 또는 근속 및 경력년수가 짧다든지 하는 인적자본속성의 차이로는 설명되기 힘들다. 왜냐하면 수출산업의 저임금근로자 중 중졸이하의 비중이 64.2%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산업의 저임금근로자계층의 평균임금은 9만 3천원으로 내수위주산업의 9만 5천원 다음으로 높으며 중졸이하의 비중이 수출산업보다 낮은 내수산업 및 수출위주산업의 저임금근로자계층의 평균임금보다 높기 때문이다. 특히 내수산업은 저임금근로자계층의 평균근속 및 경력년수가 수출산업과 유사하며 중졸이하의 학력자의 비율이 수출산업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내수산업의 저임금근로자계층의 평균임금이 수출산업보다 낮다. 따라서 수출산업의 저임금계층의 광범위성은 수출산업 자체의 생산 및 노동과정이 저임금에 기초하는 노동집약적인 단순조립가공방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노동공급측면의 차이때문이 아니라 노동수요의 특수성 때문에 수출산업에 저임금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7년에는 저임금근로자계층이 급속히 감소되었다. <표 8>에 의하면 내수산업, 내수위주산업, 수출위주산업 그리고 수출산업의 저임금근로자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3.1%, 2.0%, 3.6%로 전년도에 비해 급속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된 주된 이유는 85년 이래로 계속된 3저호황이 노동시장에서 미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노동시장에서의 구인난에 기인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는 87년 7월~9월까지의 대규모 노사분규의 파급효과 때문일 것이다.

중요한 점은 노동시장의 작용에 의해서 또는 87년 대규모 노사분규의 파급효과로 해

서 수출산업의 저임금근로자계층이 급격히 축소되었다는 것은 수출주도형산업화의 추진이 저임금근로자계층을 잔존시킨다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는데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지적되어야 할 점은 수출산업의 임금수준 자체도 1987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5>에 되돌아가 1986년과 1987년 양 년도의 임금인상율을 살펴보면, 단기근속의 젊은 남자 고졸생산직은 86년 18만 4천원에서 87년 23만 원으로 평균 24.8%라는 높은 인상율이 시현되었다. 내수산업과 내수위주산업의 경우는 23.4% 수출위주산업은 26.6% 수출산업은 24.5%로써 수출과 주로 관련된 산업에서의 임금상승이 내수와 주로 관련된 산업보다 높게 되었다. 장기근속의 고졸생산직의 경우에도 86년 41만 7천원에서 87년 50만 5천원으로 평균 21.1%의 임금상승이 있었고 내수, 내수위주산업은 각각 18.7%, 22.4%였으며 수출위주의 수출산업은 24.4%, 22.2%로써 수출과 주로 관련된 산업의 임금인상율은 장기근속자의 평균인상율보다 크게 되었다.

1987년을 기점으로 하여 수출과 주로 관련된 산업 즉 수출위주산업과 수출산업은 이 부문의 저임금을 해소하고 이 부문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저임금계층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Ⅵ. 임금상승율과 부가가치노동생산성상승율

1986년까지만 하더라도 외양상 노동경제에서는 과거의 추세들이 별 변화없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다. 수출산업은 저임금으로 특징지어지고 있었고 수출산업에는 광범위한 저임금계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수출산업의 저임금이 해소되고 수출산업의 광범위한 저임금계층이 축소되는 경향성이 1987년을 기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 수출을 위주로 하는 산업에서의 높은 임금인상율은 수출기업경영의 희생下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수출기업경영의 지불능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만약에 수출산업의 지불능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높은 임금인상율이 이루어졌다면 수출산업이 노동자후생을 증진시키고 있는 실질적 증거가 될 것이다. 반대로 높은 임금인상이 수출산업의 희생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수출산업은 증대된 임금비용에 대응하여 고용조정을 하게 될 것이므로 노동자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증대된 임금과 감소되는 고용효과를 동시에 검토하여야 의미있는 결론이 도출될 것이다.

우선 「 86-87-88 기업체자료 」를 이용하여 지난 3년간의 임금인상율을 <표 9>을 이용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86년의 임금인상율은 7.8%였으며 87년과 88년은 각각 14.7%, 15.8%였다. 87년과 88년 양년도의 임금상승율의 약 2배가 되었다. 생산직의 임금인상율은 86년, 87년, 88년에 각각 8.4%, 16.5%, 17.5%가 되었고 사무직은 각각 6.5%, 11.8%, 13.3%였다. 생산직의 임금인상이 사무직보다 크게 되어 뒤에 설명하겠지만 직종간 임금격차가 축소되게 되었다.

86년 임금인상율이 7.8%였을 때 내수, 내수위주, 수출위주, 수출산업의 인상율은 각각 7.4%, 7.3%, 7.4%, 8.8%로써 수출산업만이 평균수준인 7.8%를 1%포인트만큼 근소히 능가하고 있었고 여타 산업은 평균수준에 대단히 근접해 있었다.

87년의 임금인상율이 14.7%였을 때 내수, 내수위주, 수출위주, 수출산업의 인상율은 14.1%, 15.8%, 14.7%, 14.9%로써 수출산업은 87년 평균인상율과 거의 같았다.

그러나 88년의 임금인상율이 15.8%였을 때 수출산업은 16.1%로 내수, 내수위주, 수출위주산업 보다 높고 평균수준인 15.8%보다 1.3%포인트 높게 되었다.

86, 87, 88년 3개 년도에 있어서 수출산업은 전체 평균상승율과 같거나 약간 높게 되었고 수출위주산업은 전체 평균상승율과 거의 유사하였다.

반면에 기업의 지불능력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부가가치생산성상승율은 87년에 18.2%, 88년에 18.7%로써 한국의 기업이 크게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생산성의 상승율이 임금상승율을 상회하고 있어 기업의 임금비용은 오히려 감소하였다.⁵⁾

87년에는 수출산업의 부가가치생산성 성장이 26.7%로 가장 높았고 88년에는 내수위주산업이 26.3%로 가장 높아 성장의 축이 수출산업에서 내수위주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수출산업 및 수출위주산업의 부가가치생산성상승율 또한 각각 20.0%, 20.9%로 평균보다 대단히 높아 수출분야가 성장의 축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이 유의될 필요가 있다.

수출위주산업의 87년의 경우와 내수산업의 88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생산성의 증가율이 임금상승율을 능가하고 있어, 임금이 크게 오르더라도 그 상한선이 부가

가치생산성증가율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수출산업에서 낮은 임금수준에서 높은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저임금근로자계층이 축소된 것은 수출기업의 희생下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부가가치생산성의 실현에 따른 노동자 후생의 증대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Ⅶ. 수출산업과 임금구조

우리나라는 과도한 직종별·학력별·성별 임금격차에 의해 특징지워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연령-임금곡선에 나타나는 연령별 임금격차가 연령이 증가함에 대단히 커지는 현상을 갖고 있다.

수출산업은 직종별·학력별 임금격차에 성별 임금격차에 그리고 연령별 임금격차에 있어서 내수위주의 산업인 내수산업, 내수위주산업과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가? 만약에 차이점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이제 우리는 접근해 보기로 한다.

우선 <표 10>을 이용하여 고졸생산직과 대졸사무직간의 임금격차를 살펴보자. 86년에는 젊은 남자대졸사무직은 젊은 남자고졸생산직보다 무려 2.11배의 임금을 더 받았으나 87년에는 1.83배의 임금을 더 받고 있어 학력별·직종별 임금격차는 상당히 축소되었다. 1987년 노사분규시 노동자의 주된 요구중의 하나가 학력별·직종별 차별대우의 철폐였기 때문에 상당히 축소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 격차수준은 아직도 대단히 높은 편이다.

수출산업에서의 장기근속자의 경우는 86년에 남자대졸사무직은 남자고졸생산직보다 1.7배를 더 받아 장기근속자 표본전체의 2.12배 격차보다 낮다. 젊은 남자대졸사무직은 젊은 고졸생산직보다 1.86배 더 받아 단기근속자 표본전체의 2.11배 보다 낮다.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는 것은 수출산업의 대졸임금이 여타 산업보다 크게 낮기 때문이다.

수출산업의 남자고졸사무직은 장기근속자의 경우 86년에 고졸생산직보다 1.30배 더 받았으며 이는 장기근속자 표본전체의 격차와 유사하다. 수출산업의 단기근속의 남자고졸사무직은 고졸생산직보다 1.78배 더 높게 받아 단기근속자 표본전체의 격차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1987년에 이르러 학력별·직종별임금격차가 전반적으로 축소됨에 수출산업의 대졸사무직 對 고졸생산직, 고졸사무직 對 고졸생산직 격차는 젊은 단기근속자와 장기근

속자의 양 경우에 있어서 표본의 평균에 대단히 근접함이 나타났다.

따라서 수출산업에서는 상품시장을 해외에 의존할 뿐 직종별·학력별 임금격차는 우리나라의 여타 산업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하겠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나라 수출산업이 해외에서 복제가능한 표준화된 기술을 도입하고, 기계설비 원재료를 차관 등의 형태로 도입하여 조립가공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구조⁶⁾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졸자에 높은 임금을 지불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근대적인 외국의 인사·노무관리방법은 수출산업을 통하여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차관을 통한 수출기업의 육성은 수출산업에서 인사·노무관리기법이 국내기업의 그것과 동일한 형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⁷⁾

그러나 수출산업의 바로 이러한 성격이 생산직에 있어서 성별차별을 해소하는데는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표 11>에 의하면 단기근속의 젊은 여성 고졸생산직은 86년에 남자고졸생산직의 임금의 84.3%를 받았으나 87년에는 81.0% 밖에 받지 못하고 있어 87년 노사분규는 성별격차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그런데 수출산업에서는 86년에는 남자고졸생산직의 95.4%를 87년에는 남자고졸생산직의 90.3%를 여자고졸생산직에 지급하여 생산직에 있어서는 수출산업의 성별차별이 여타 산업보다 가장 낮고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임금에 대단히 근접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수출산업의 기술적 성격은 남성과 여성노동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출산업의 임금구조중에서 직종별·학력별 임금구조와 성별 임금구조가 분석되었는데 연령별 임금구조는 대단히 흥미있는 점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아래의 별도의 후에서 다루기로 한다.

VII. 수출산업과 연령별 임금격차

연령별 임금구조 즉 연령이 증가함에 임금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연령-임금곡선의 모양은 인적자본이론에서 다음 세가지 측면에 있어서 중요성을 갖는다.

첫째, 연령-임금곡선은 연령이 증가함에 개인의 경험 및 숙련 등 인적자본량이 변화함에 임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다.

둘째, 한 개인의 연령-임금곡선은 그 개인의 생애임금(life-time income)을 추산

하는데 이용된다.

셋째, 일정량의 인적자본을 가진 개인의 연령-임금곡선과 그와 다른 양의 인적자본량을 가진 개인의 연령-임금곡선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즉 각 개인의 생애임금을 비교함으로써 인적자본이 증가하는데 대한 수익율을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그러나 필자는 연령-임금곡선이 노동자의 장래임금 또는 기대임금을 나타내준다는 종래의 인적자본론의 논의를 수용하면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비추어 연령-임금곡선의 의미를 수정하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고연령층 생산직의 숫자가 일본이나 歐美에 비해 대단히 적다. 따라서 고연령층의 생산직으로서 살아남을 확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생산직 노동자의 생애임금 또는 장래의 기대임금을 추산하는데 있어서는 장래의 임금에 생산직으로 살아남을 확율을 곱해서 他國과 비교하거나 橫斷面(cross-section) 비교 예컨대 대기업 對 중소기업, 수출산업 對 내수산업, 노조조직기업 對 非노조조직기업의 연령-임금곡선을 비교하는 것만이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 유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노동자를 남자생산직과 여자생산직 그리고 남자사무직과 여자사무직으로 네 분류하여 내수, 내수위주, 수출위주, 수출산업에서의 연령별 구성비를 우선 살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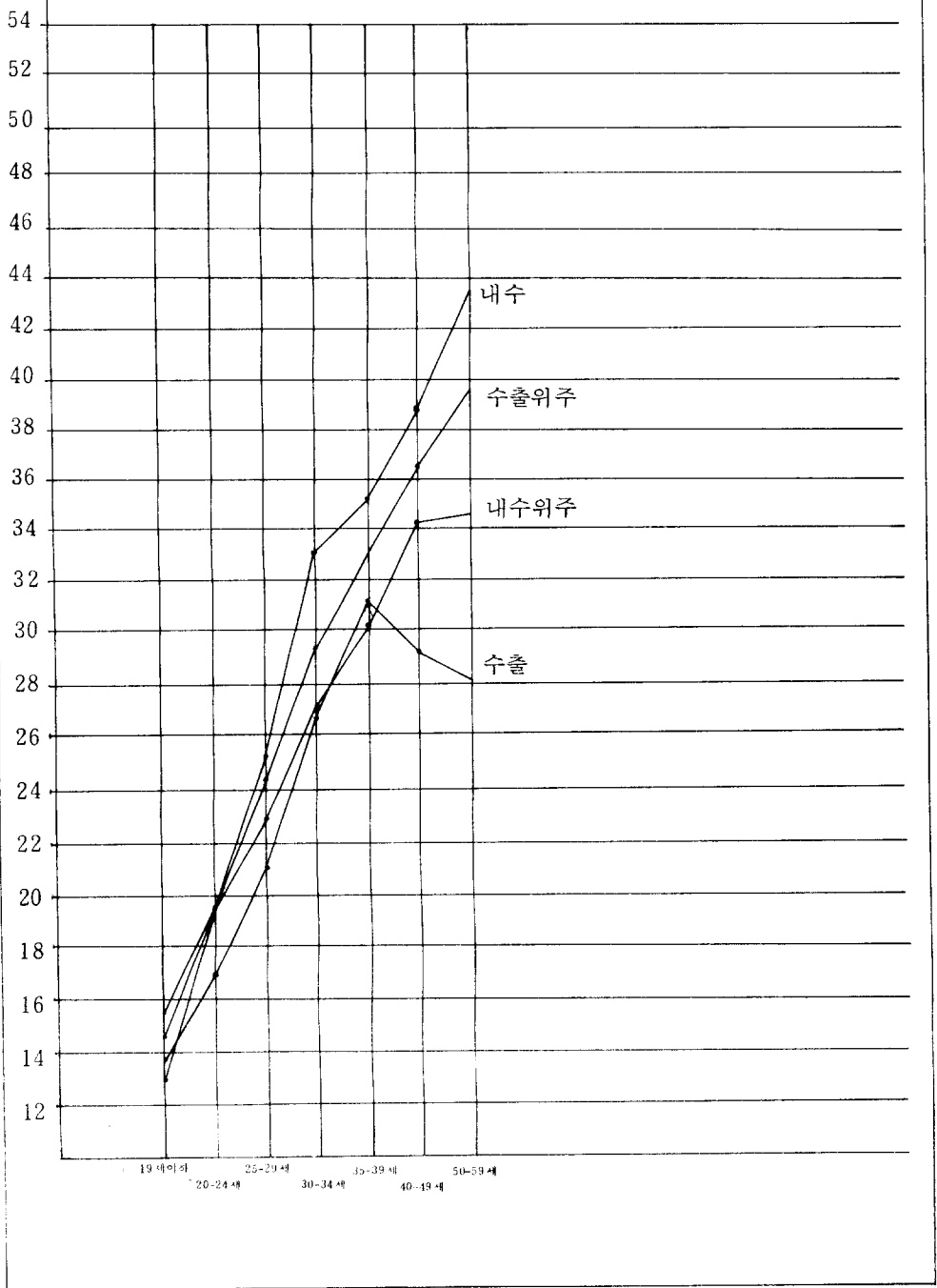
〈표 12〉에서는 남자생산직과 남자사무직의 1986년 연령별 구성비⁸⁾가 나와있다. 〈표 12〉에서 첫번째로 특징적인 점은 수출산업에서는 25-29세 이하의 연령계층의 구성비는 표본전체의 평균보다 높고 30-34세 이상의 연령계층의 구성비는 표본전체의 평균보다 높고 30-34세 이상의 연령계층의 구성비는 표본전체의 평균보다 낮다는 점이다. 즉 수출산업은 젊은 노동자를 주로 채용한다는 점이다.

두번째로 특징적인 점은 내수, 내수위주, 수출위주, 수출산업에 있어서 모두 고연령층의 비중이 30-34 이상에서는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산업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는 점이다. 이는 수출산업의 생산기술적 성격으로해서 고연령층을 크게 수요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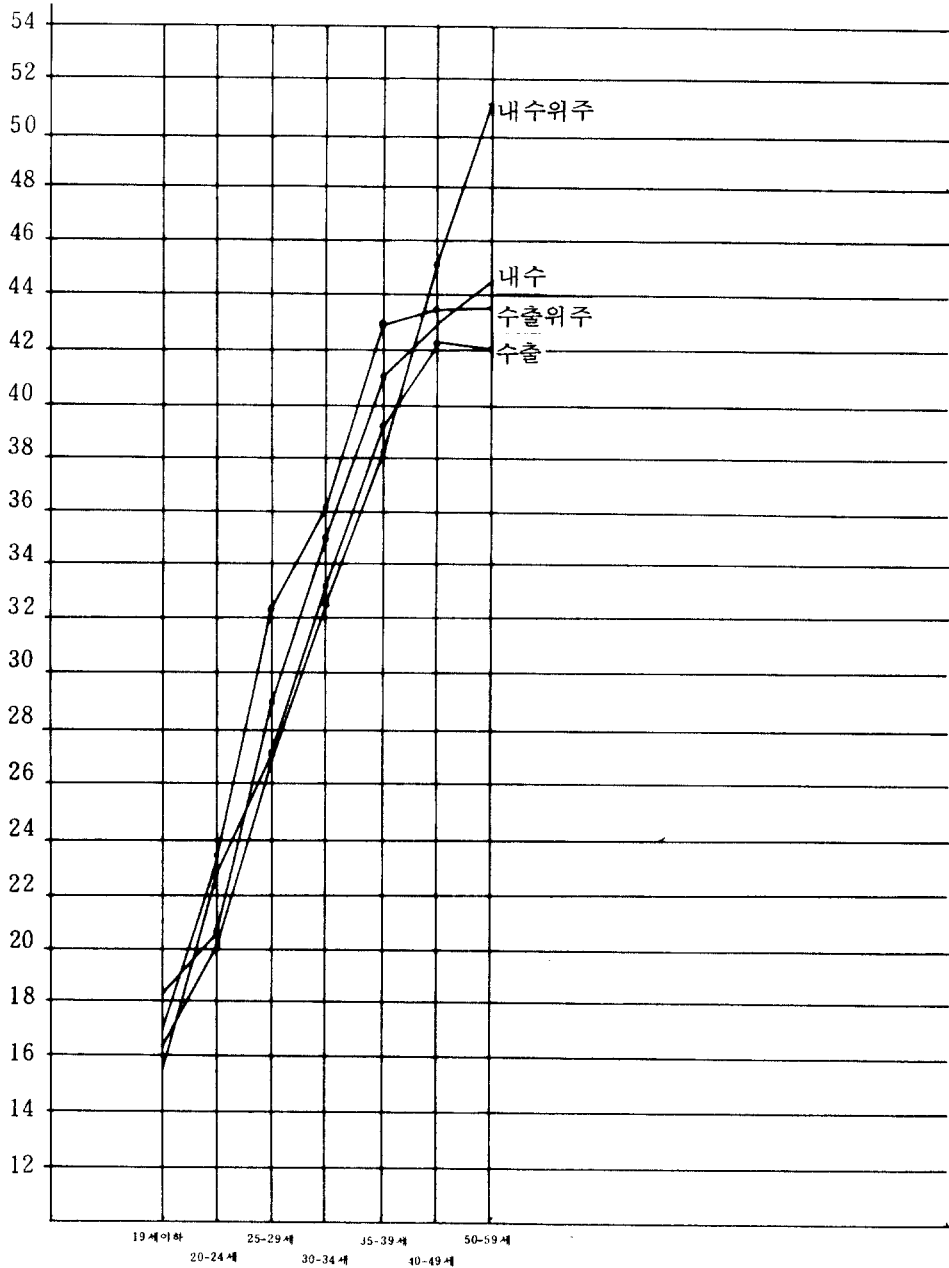
수출산업에서 장기근속자로 또는 고령자로 살아남을 확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각 산업의 연령-임금곡선⁹⁾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남자생산직의 1986년 연령-임금곡선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1987년 연령-임금곡선은 〈그림 2〉에 나와 있다. 수출산업에서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고연령층으로 살아남을 확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림 1〉에 의하면 35-39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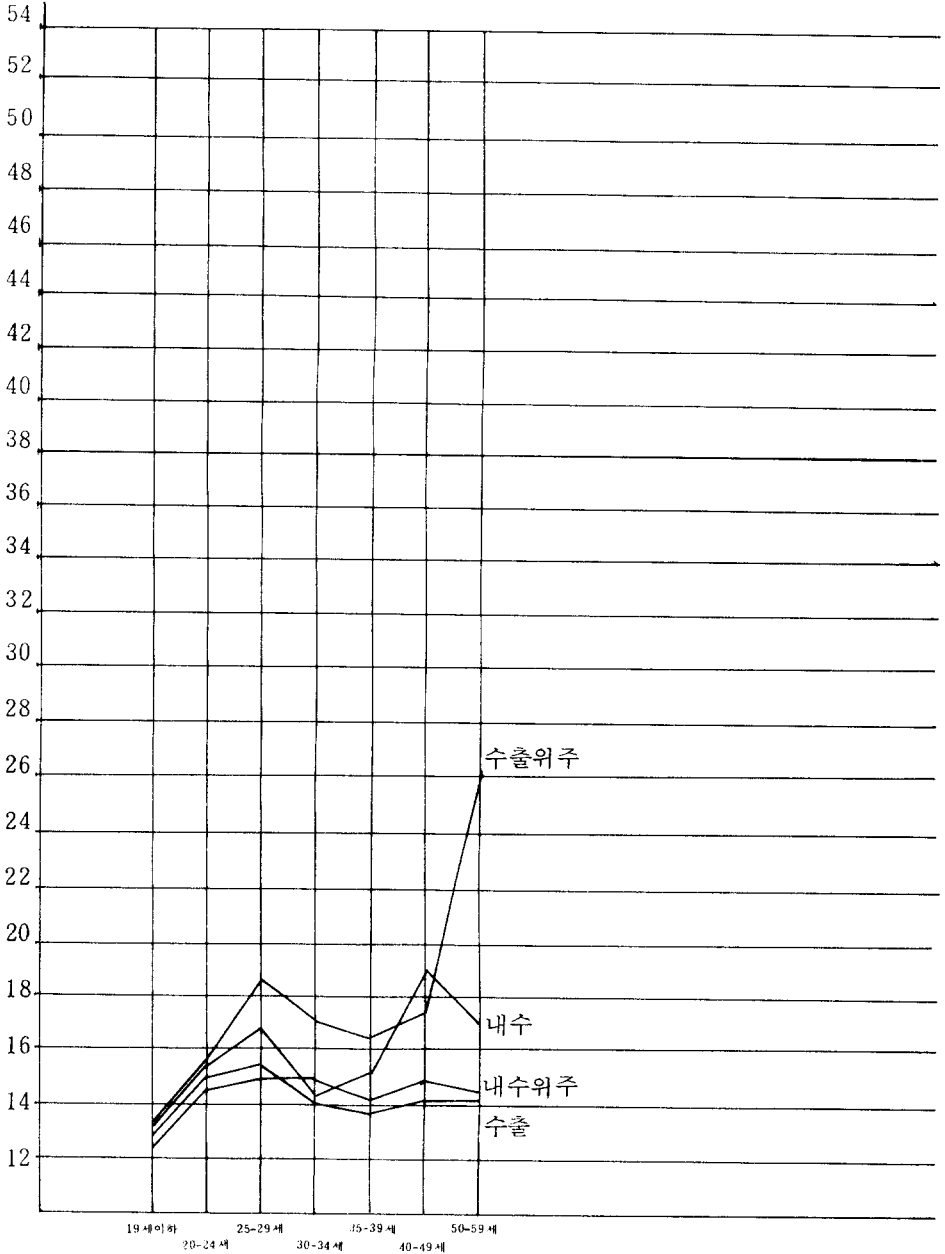
(단위 : 만원) <그림 1> 남자생산직의 연령 - 임금곡선,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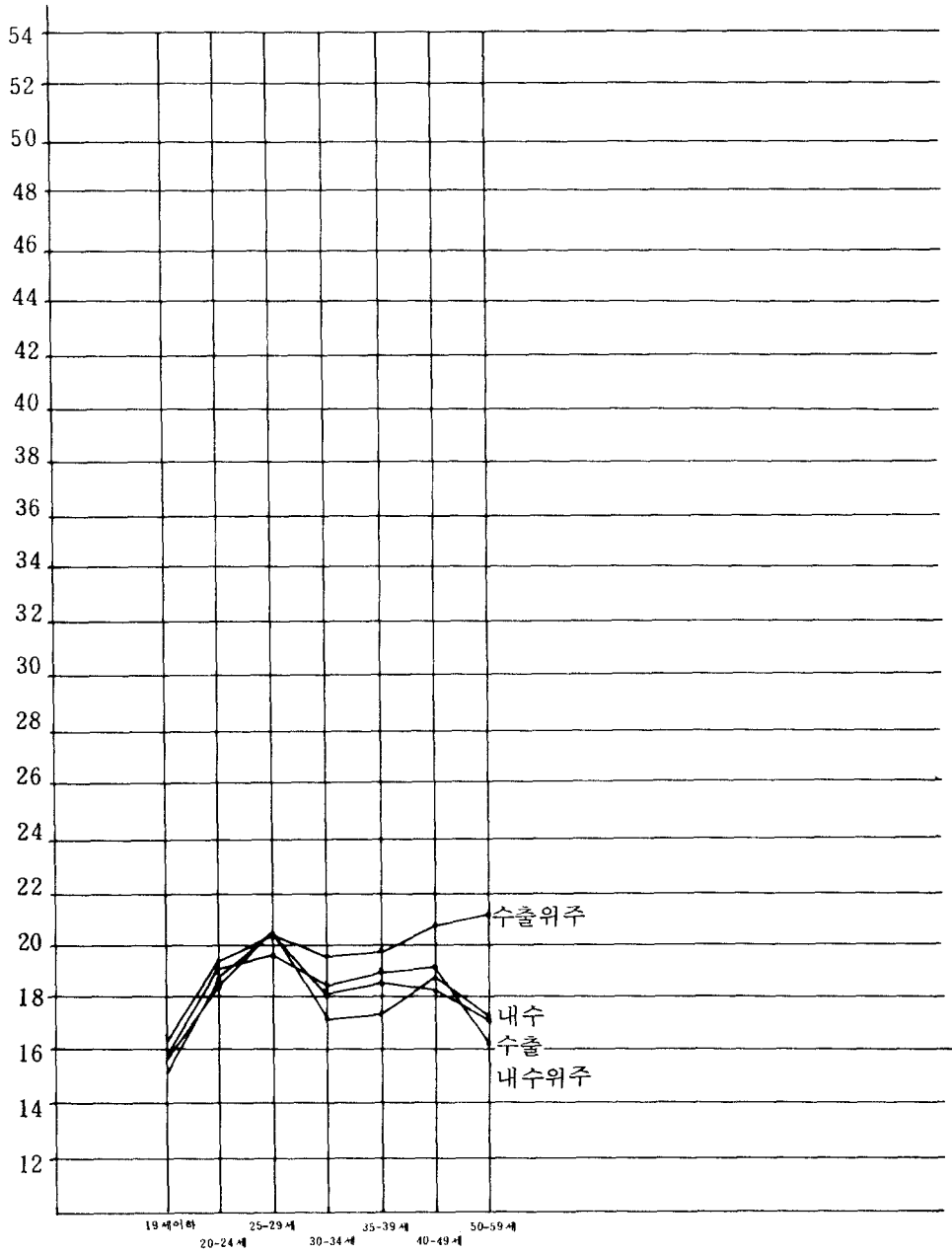
(단위 : 만원) <그림 2> 남자생산직의 연령-임금곡선, 1987



(단위 : 만원) < 그림 3 > 여자생산직의 연령 - 임금곡선, 1986



(단위 : 만원) < 그림 4 > 여자생산직의 연령 - 임금곡선, 1987



에서는 임금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이는 수출산업에서 35-39 세 이전까지는 경험과 숙련이 증가되나 그 이후에서는 더 이상의 경험과 숙련이 형성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수출산업이 단순조립적 가공생산의 성격에서 유래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림 1>에는 내수산업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임금수준이 크게 높아지며, 그 다음에 수출위주산업, 그다음에 내수위주산업 그리고 수출산업의 연령-임금곡선이 위치하고 있음이 나타나 수출산업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연령층에 있어서 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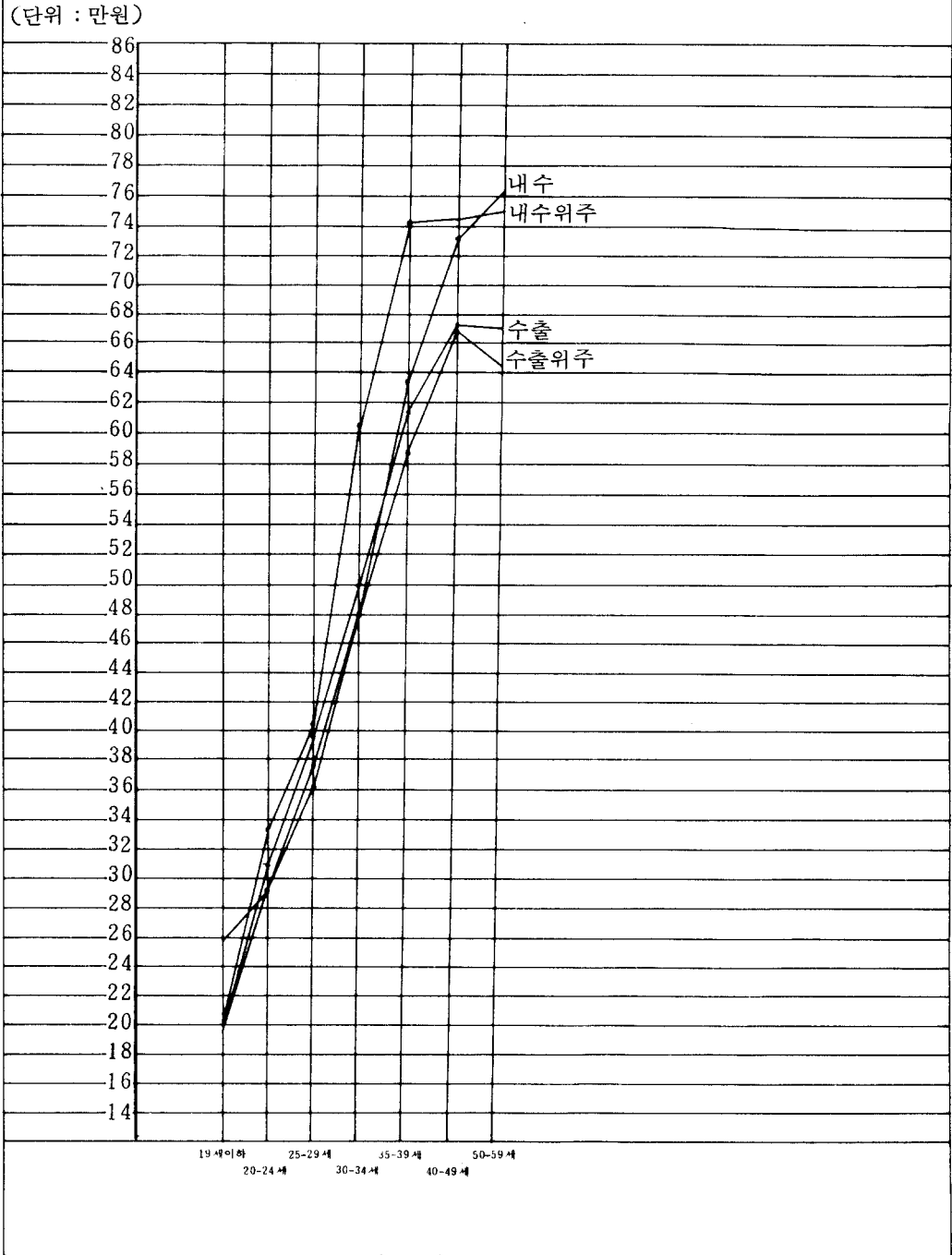
이러한 연령별 임금구조가 87년 노사분규를 겪으면서 크게 변화되었다. <그림 2>에 의하면 수출산업은 40-49 세 이전에 있어서는 내수위주산업과 연령별 임금격차가 거의 없다시피 하게 되었다. 그리고 40-49 세 이전의 연령계층에서는 수출위주산업의 연령-임금곡선이 가장 높게 위치하여 86년에 가장 높게 위치하던 내수산업은 이제 그 다음으로 위치하여 수출위주산업과 내수산업의 위치가 반전되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87년을 기점으로 수출위주산업이 거의 모든 연령계층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수출산업의 연령-임금곡선이 내수위주산업의 그것을 따라 잡고 있다는 것은 수출산업 위주의 경제성장이 이제 노동자의 실질적 후생의 증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헤셔-올린(Heckscher-Ohlin)의 무역모형에 의하면 일정한 가정하에서 각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부존량을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상품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하였고 각국은 비교우위를 갖는 상품에 특화함으로써 국제무역은 각국의 상대적으로 풍부한 부존자원의 소유자에게 급전적 이익이 돌아간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자원에 대해 국제무역을 통한 이익의 실현 즉 높은 임금의 지불은 시장경제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노동운동의 결과로써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헤셔-올린의 무역이론은 일반적 타당성은 가지나 무역의 이익이 실현되는 메카니즘은 헤셔-올린 모형이 상정하고 있는 시장의 작용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작용이라는 내용을 우리나라에서는 갖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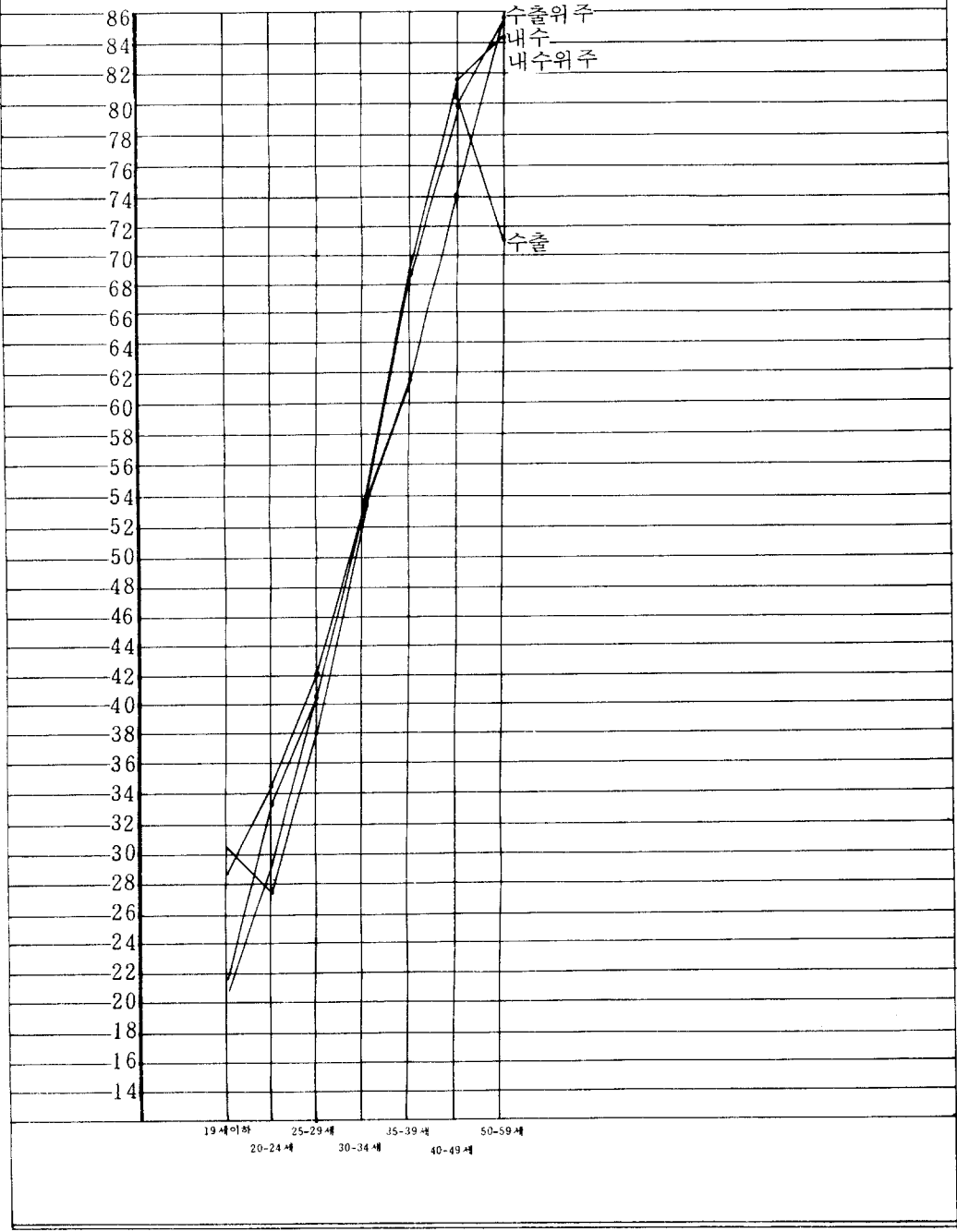
여자생산직의 86년 연령-임금곡선은 <그림 3>에 87년의 것은 <그림 4>에 나와 있다. 86년에는 40-49 세 이전에는 수출위주산업이 각 연령계층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지불하였고 수출산업은 대체적으로 가장 낮은 임금(25-29 세 이하에서는 수출산업이 내수위주산업 보다 높다)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87년에는 거의 모든 연령계층에서 수출위주산업의 임금이 가장 높으며 수출산업의 임금은 40-49 세 이전에는 내수위주산업 보

〈그림 5〉 남자사무직의 연령 - 임금곡선, 1986



〈그림 6〉 남자사무직의 연령 - 임금곡선, 1987

(단위 : 만원)



다 높고 모든 연령계층에서 내수산업의 임금을 따라 잡고 있다.

남자사무직의 86년 연령-임금곡선은 <그림 5>와 <그림 6>에 나와있다.¹⁰⁾ 1986년에는 생산직의 경우와는 달리 내수위주산업의 연령임금곡선이 가장 높게 위치하고 있어, 근로자의 수생애에 걸쳐서 생산직과 사무직간의 임금격차는 내수위주산업에 있어서 가장 크다고 하겠다. 또한 수출위주산업의 생산직과는 달리 이 부문의 사무직은 타 산업에 비해 열위에 있다. 내수수출위주, 수출산업의 연령-임금곡선은 20-24세 계층에서 35-39세 계층에 이를 때까지 대단히 근접되어 있다. 그리고 35-39세 이상의 사무직의 임금은 수출과 수출산업에서 가장 낮게 되고 있다.

그런데 87년에는 25-29세의 연령계층에서 40-49세의 연령계층에 이르기까지 가장 크다고 하겠다. 또한 수출위주산업의 생산직과는 달리 이 산업의 남자사무직의 연령-임금곡선은 수출산업의 그것과 대단히 유사한 모양을 보이고 있으며 내수와 내수위주산업의 연령-임금곡선보다 수출산업의 연령-임금곡선이 가장 낮게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87년에는 25세~29세의 연령계층에서 40-49세의 연령계층에 이르기까지 내수위주, 내수 그리고 수출산업의 연령별 임금격차는 거의 없다시피 하게 내수위주, 내수 그리고 수출산업의 연령별 임금격차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 또한 수출산업에서 사무직의 임금인상의 폭이 가장 높았다는 것에 기인한다. 수출위주산업은 30-34세 이전에는 여타 산업에 비추어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편이었으나 30-34세 이후는 가장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편이다. 그러나 수출위주산업과 여타 산업간의 연령별 임금격차는 크게 축소되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자생산직, 남자사무직의 경우에 있어서도 남자생산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출산업 또는 수출위주산업의 호조가 눈에 두드러지고 있다. 무역의 이익은 남자생산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자생산직 그리고 남자사무직에도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 실증적 자료에 기초한 우리의 결론이다.

Ⅸ. 수출산업의 노동시간

선진국의 노동공급의 모양은 일반적으로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공급량이 증대되는 右上向의 기울기를, 노동의 공급탄력성이 正의 크기를 갖는다. 그러나 임금이 대단히 높은 일부 나라에서는 임금이 증가되면 노동공급시간이 감소되어 노동공급곡선은 높은 임금수

준 이상에서는 ‘뒤쪽으로 구부러지는’ (backward bending) 모양을 갖는다.

이때 최소한 논리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 높은 임금수준 이상에서 노동공급곡선이 뒤로 구부러지는 모양을 가질 때 아주 낮은 임금 수준 이하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컨대 임금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가정해 보자. 임금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특히 家口主의 경우는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동하려고 할 것이다. 즉 저임금에 대한 노동자의 적응방식은 장시간 노동에 있게 된다.

이를 여가-소득 (leisure-income)에 관한 개인의 선택모형을 가지고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게 될 것이다. 임금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여가를 더 이용하려는 正 (+)의 대체효과 (substitution effect)는 대단히 작아지고 임금하락으로 보다 가난해진 결과 여가를 줄이려는 負 (-)의 소득효과 (income effect)가 더욱 커짐으로써 負의 소득효과가 正의 대체효과를 압도하게 되면 여가의 이용은 줄어들고 노동의 공급량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즉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공급량은 증가한다. 그러므로 낮은 임금수준에서는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공급곡선은 ‘앞쪽으로 구부러져 내려가는’ (forward bending)부분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은 선진국의 ‘高임금, 짧은 노동시간’의 정반대 경우로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소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한국의 노동공급곡선의 모양은 어떠한가?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 공급곡선은 후진국형 즉 노동의 공급탄력성이 (-)이다. 임금이 하락할 때 노동공급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임금이 크게 상승하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노동의 공급탄력성이 (-)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대단히 낮다는 것을 반증하게 되는 자료가 된다.

한국의 수출산업은 여타 산업과의 비교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해야 하겠다.

우선 < 표 13 >을 살펴보자. 86년에 전체표본에서 노동자는 月 250.0 시간 일을 하고 있었다. 이는 週當 57.5 시간에 해당하는 것이며 1987년 일본제조업 41.3 시간, 미국의 제조업 41 시간, 프랑스 제조업 39.1 시간, 서독 제조업 40.1¹¹⁾ 시간에 비하면 선진국에 비해 주당 17 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었다. 87년에 이르면 노사분규시 장시간노동 단축요구가 있었고 또한 대폭적인 임금인상효과로 해서 月 236.7 시간, 週當 54.5 시간으로 감소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주당 14.5 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 특히 남자생산직의 노동시간은 86년 月 261.8 시간으로 週當 60 시간을 일하였고 87년에는 月 248.3 시간으로 週當 57.1 시간으로 줄었으나 아직도 남자생산직의 장시간노동은 대단히 심각

하다.

수출산업의 노동시간은 1986년에 전체표본, 남자생산직 여자생산직 그리고 남자사무직의 경우에 각각의 평균보다 낮다. 수출산업의 여자사무직은 여자사무직 평균보다 약간 높다. 그런데 수출위주산업의 노동시간은 86년에 전체표본, 생산직 남여 사무직 남여 모든 카테고리에 있어서 평균보다 높다. 그러나 내수산업 및 내수위주산업의 노동시간 또한 평균수준과 거의 동일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장시간노동의 문제는 일반적 현상이며 수출산업에서 예외적으로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겠다.

87년에는 수출산업은 생산직남여, 사무직남여 모든 카테고리에서 평균보다 낮고 수출위주산업은 평균보다 높으며 내수와 내수위주는 평균과 근접한 86년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수출산업의 장시간 노동문제를 좀 더 깊게 다루어 보기 위하여 필자는 <표 14>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의 86년 월 평균 근로시간 237.7시간과 87년 234.6시간을 평균한 시간 236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을 일하는 장시간근로자와 그 이하를 일하는 非장시간근로자를 구분하여 각 산업에 있어서 장시간근로자의 비중을 구하였다. <표 14>에 의하면 내수산업, 내수위주산업, 수출위주산업, 수출산업에 있어서 각각 62.5%, 61.2%, 65.6%, 63.2%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 장시간 노동의 문제는 전반적 현상이라는 점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²⁾

그리고 각 산업에 있어서 非장시간근로자와 장시간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비교하면 非장시간근로자는 평균임금이 높고 장시간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낮아 우리나라에서의 장시간의 문제는 낮은 임금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 또한 <표 14>에서 나타나고 있다.

노동공급을 이야기할 때는 임금의 퍼어센트(%) 변화율에 대비한 노동시간의 퍼어센트(%) 변화율 즉 노동의 공급탄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수위주산업의 남자사무직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노동공급탄력성은 (-)의 부호를 갖고 있다. 86년과 87년의 각 카테고리에 있어서 노동시간 감소의 %변화율을 임금상승의 %변화율¹³⁾로 나누었을 때, 전체표본에서는 임금이 1% 상승할 때 노동시간은 0.3시간 감소하게 되었다. 노동공급탄력성의 절대적 크기는 사무직의 그것이 훨씬 크다. 이는 생산직의 상대적 저임금으로 해서 생산직 임금의 대폭적 상승에도 생산직 노동자를 노동시간을 상대적으로 적게 줄였기 때문이다.

수출산업의 노동공급탄력성의 절대적 크기는 전체표본의 약 1/2이며, 남자생산직의 경

우는 전체 남자생산직의 노동공급탄력성의 절대적 크기의 1/3 에 불과한데 이는 수출산업의 생산직 노동시간이 생산직 전체의 평균노동시간보다 86 년과 87 년 양년도에 낮았고 노동시간의 감소정도가 86 년의 252.9 시간에서 87 년의 月 248.4 시간으로 불과 月 4.5 시간 밖에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X. 맺 는 말

이상의 분석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게 된다.

첫째로 임금수준의 측면에서 젊은 남자 고졸생산직, 고졸사무직 및 대졸사무직의 임금은 수출산업이 가장 낮으며 젊은 여자생산직의 경우는 수출산업의 임금이 높다.

둘째로 1987 년을 기점으로 수출산업과 수출위주산업 저임금은 크게 해소되고 있으며 이 부문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저임금계층은 크게 축소되었다.

셋째로 87 년 88 년의 수출 및 수출위주산업에 있어서 임금상승은 기업경영의 희생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높은 부가가치생산성의 증가라는 한국경제의 고성장이 노동자에게 실질적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넷째로 연령-임금곡선의 검토에서 남자생산직과 여자생산직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남자사무직에게 까지 수출산업 및 수출위주산업에서 노동자의 연령별 임금의 측면에서 노동자의 후생이 크게 되었다는 것이 나타났다.

다섯째로 한국에서 무역으로 부터의 이익이 노동자에게 배분되는 메카니즘은 노동시장의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노동운동의 결과로 성취되기도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여섯째, 저임금·장시간노동이 수출산업을 특징지운다는 일반적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노동공급탄력성이 (-)의 크기를 갖는다는 점에서 저임금·장시간의 문제는 한국노동경제의 전반적 현상이다.

일곱째, 노동시간의 구체적 실상을 살펴보면 1987 년에 수출산업은 생산직 남여, 사무직 남여 모든 카테고리에서 평균보다 낮으며 수출위주산업은 평균보다 높고 내수와 내수위주산업은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 1986 년의 구조도 극소수의 예외는 있지만 87 년의 구조와 동일하다.

그러나 수출위주산업과 수출산업은 젊은 근로자, 짧은 경력 및 근속년수의 단신의 노

동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높은 비중에 의해 특징지워지고 있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한다. 특히 짧고 짧은 경력 및 근속년수의 노동자로 구성된 수출산업은 앞의 분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히 노동자의 높은 이직률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표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이직율은 대단히 높은 편이지만 수출산업의 이직율은 특히 더 높다. 구체적으로 수출산업의 이직율은 1986년에는 59.1%, 87년에는 48.2%로 다소 낮아졌으나 88년에는 다시 52.5%로 높아졌다.

짧고 짧은 경력 및 근속년수의 노동자로 구성된 수출산업 그리고 높은 이직율로 특징지워지는 수출산업은 노동자가 기업내부에 장기적으로 정착될 수가 없는 수출산업의 노동수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즉 복제가능한 기술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미 표준화된 제품생산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하여 노동집약적인 대량생산의 방법으로 단순 조립하여 해외에 그 제품시장의 판로를 찾은 수출산업의 생산기술적 성격이 바로 그것이다.

수출산업의 부가가치생산성의 증가율이 임금상승율을 능가하고 있어 수출산업의 임금비용에는 큰 압박이 단기적으로는 없다고 하더라도 수출산업이 기술집약적이며 지식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환되고 특히 일본과의 수직적 분업체계를 지양하기 위해 부품 및 소재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리고 국제경기변화에 신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의 소량다품종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금까지 축적된 현장기술 및 현장경험의 소유자를 기업내부에 정착시키거나 그러한 숙련노동자를 기업내부에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수출산업은 안고 있다. 수출산업 또는 수출위주산업이 이러한 산업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무역으로 부터 이익을 노동자에게 장기적으로 귀속시키는 장기적 방안이 될 것이다.

1987년을 기점으로 수출과 관련된 산업에서 일어난 노동자의 후생의 증진이 단기적 현상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인지는 향후 이들 산업에서 현장기술의 소유자, 현장경험의 소유자를 어떻게 양성하며 이들을 어떻게 기업내부에 정착시켜 기업의 성장에 헌신하게 할 수 있는가하는 데 결정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장경험과 현장기술의 소유자에게 합당한 급여체계를 고안하고 이들에게 합당한 동기부여책을 부여하기 위해서 수출 또는 수출위주산업에서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인지는 좀 더 관찰을 요하는 분야가 될 것이다.

주

- 1) 배무기교수는 「 Export -Led Industrialization and Wages and Labour conditions in Korea »,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6 라는 논문을 발간한 바가 있다. 1984년 직종별 임금 서베이에 56개기업(섬유, 의복, 전자)의 수출율을 삼입하여 수출과 임금과의 관계를 살펴본 적이 있다.
- 2) 「 '87, '88 노사분규에 관한 종합연구」 김정호, 이각범, 김태기, 조우현 공저, 한국노동연구원 1989. 8. 자료는 조우현에 의해 만들어졌다.
- 3) 최초에는 332개 기업이 추출되었으나 누락된 정보때문에 311개 기업으로 되었다.
- 4) 「 '87, '88 노사분규에 관한 종합연구」 참조.
- 5) 86년에 총매출액에 대비한 임금비용의 비중은 18.4%였으며 87년 88년에는 18.3%, 17.6%로 경미하게 하락하고 있다.
- 6)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이러한 성격은 강철규, 장석인 「加工貿易과 産業組織」, 산업연구(1987.7)이라는 연구보고서의 주요결론이며 조우현 「電子産業의 勞動市場과 勞使關係」KDI(1988.1)의 구체적 사례연구에서 밝혀진바 있다.
- 7) 우리나라의 임금체계에서 정액급여의 비중이 낮은것이 歐美諸國과의 비교에서 특징적인데 임금체계면에서도 수출산업은 여타산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총임금에서 정액급여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의 비중은 <부표 1> <부표 2> <부표 3>에 수록되어 있다. 즉 단기근속의 젊은 남자노동자, 단기근속의 젊은 여자노동자 그리고 장기근속남자 노동자의 1987년 경우가 부표에 실려있다. 수출산업이 여타산업과는 다른 선진권 인사 노무관리 관리기법을 도입한 것 같지는 않다.
- 8) 1987년의 구성비는 <부표 4>에 수록되어 있다.
- 9) 연령-임금곡선을 그리는데 이용된 자료는 <부표 5> <부표 6> <부표 7> <부표 8>에 수록되어 있다.
- 10) 여자사무직의 연령-임금곡선은 <부표 9>와 <부표 10>에 수록되어 있다.
- 11) 「분기별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1988.12. 1989.3.
- 12) 87년의 경우는 <부표 11>에 수록되어 있다.
- 13) 임금변화율은 <부표 12>을 이용개산되었다.

참 고 문 헌

1. 강철규, 장석인, 「加工貿易과 産業組織」산업연구원, 1987.7.
2. 배무기 「Export-Led Industrialization and Wages and Labor Conditions in Korea」Seoul National University, 1986.6.
3. 조우현 「電子産業의 勞動市場과 勞使關係」 1988.1, KDI(미발간)
4. 조우현, 이각범, 김장호, 김태기 「'87, '88 노사분규에 관한 종합연구」1989.5(발간 예정), 한국노동연구원.

〈표 1〉 수출산업의 특성

	전체(86)	전체(87)	86				87				
			내 수	내수위주	수출	내 수	내수위주	수출	내 수	내수위주	수출
표본의 크기 (N)	102254	105920	32734	14944	17462	37114	33951	16090	19026	677	
남성의 비중	60.8%	60.9%	76.6%	70.9%	65.3%	40.6%	75.7%	69.4%	65.1%	41.5%	
혼인자의 비중	47.0%	47.5%	59.1%	53.9%	47.0%	33.6%	58.4%	53.5%	46.0%	35.6%	
가구주의 비중	44.4%	39.3%	57.1%	52.9%	47.4%	28.3%	49.7%	48.9%	37.6%	26.3%	
평균 나이	22.6	29.1	30.6	29.8	28.1	26.4	31.3	30.3	28.6	27.0	
평균근속연수	3.73	4.05	4.61	4.34	3.81	2.67	4.83	4.47	3.93	3.21	
평균경력연수	4.28	4.50	5.41	4.86	3.83	3.27	5.47	4.91	4.27	3.54	
층급 이하의 비중	39.7%	35.7%	34.1%	33.1%	41.8%	46.3%	29.7%	31.8%	36.3%	42.8%	
고졸자의 비중	50.7%	53.9%	52.5%	52.3%	50.1%	48.7%	55.1%	54.0%	56.4%	51.5%	
대졸자의 비중	6.7%	7.1%	9.5%	11.1%	5.9%	2.9%	10.9%	11.3%	4.3%	3.1%	
생산직 비중	76.6%	77.0%	66.7%	66.1%	80.1%	87.8%	68.4%	69.7%	81.1%	86.0%	
사무직 비중	19.4%	19.3%	26.1%	29.0%	16.9%	10.7%	26.9%	26.9%	15.1%	11.2%	
대기업 근로자의 비중	77.3%	75.8%	71.3%	82.6%	79.1%	79.6%	71.0%	79.1%	78.8%	77.1%	
중기업 근로자의 비중	50.3%	47.7%	52.5	43.0%	45.5%	51.7%	48.2%	43.3%	48.5	48.7	

〈자료〉 「86년 근로자자료」 「87년 근로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표 2〉 노조가입 인원수와 노조가입비율

	86		87	
	노조가입인원수	노조가입 비율	노조가입인원수	노조가입 비율
전 체	38,981	38.1 %	57,512	54.3 %
생 산 직 노 조 가 입	35,831	45.8 %	52,526	64.4 %
남 자 생 산 직	21,487	49.2 %	33,397	72.6 %
여 자 생 산 직	14,344	41.4 %	19,129	53.8 %
대 기 업 생 산 직	35,548	44.9 %	49,887	62.2 %
중 소 기 업 생 산 직	3,433	14.8 %	7,625	29.7 %
중 화 학 공 업 생 산 직	17,128	33.7 %	31,529	56.9 %
경 공 업 생 산 직	21,858	42.5 %	25,983	51.4 %
사무직노조가입비율	1,719	8.7 %	2,978	14.5 %
남자고졸이하사무직	870	11.5 %	1,563	20.1 %
여자고졸이하사무직	284	7.8 %	702	17.8 %
	N = 102,522		N = 105,920	

주 : 여기서 노조가입비율은 노조원수 (노조원수+비노조원수) × 100 임.

자료 : 〈표 1〉과 동일.

〈표 3〉 노동조합가입비율

		86				87					
		86	87	내수	내수 위주	수출 위주	수출	내수	내수 위주	수출 위주	수출
	전 체	38.1	54.3	35.7	40.2	43.8	36.7	52.1	59.5	69.3	46.3
생 산 직	남자생산직	49.2	72.5	48.7	50.1	50.9	43.3	72.0	78.5	80.2	63.4
	여자생산직	41.3	53.7	37.7	62.0	55.0	35.5	59.0	75.7	70.3	43.4
사 무 직	남자사무직	8.9	13.8	8.2	7.2	8.3	13.3	11.1	11.7	30.0	10.6
	여자사무직	7.6	17.1	8.7	4.1	14.8	6.3	16.5	14.1	32.0	12.9

주 1. 노동조합가입비율은 노조원수 / 근로자수 × 100 을 의미한다.

자료 : 〈표 1〉과 동일

〈표 4〉 노사분규의 발생빈도

	전 체	내 수	내수위주	수출위주	수 출
87 분 규 기 업 비 율	59.1	55.4	66.6	65.7	57.3
88 분 규 기 업 비 율	23.7	19.3	28.8	31.5	23.5
87-88분규비발생기업비율	33.7	37.0	26.9	26.3	36.0
87-88분규 발생 기업 비율	16.5	11.8	22.2	23.7	16.9
87 또는 88 분규발생기업비율	66.3	63.0	73.3	73.7	64.0

주 1. 노사분규발생빈도는 분규를 경험한기업 / 기업체수 × 100 을 의미한다.

자료 : 「86-87-88 기업체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표 5〉 임금수준의 비교 (전대액 기준)

(단위 : 원)

	86	증가율	86			87			87			
			내 수	내수위주	수출위주	수 출	내 수	내수위주	수출위주	내 수	내수위주	수출위주
단기 근속의 젊은 노동자	남자고졸생산직	184905	230810	24.8	193809	188634	190639	166717	239285	232833	241431	207673
	고졸사무직	272827	293686	7.6	241762	291111	287088	296535	309708	245836	337965	266846
	대학사무직	390811	422218	8.0	362242	581509	380823	310794	433375	401899	404646	379690
	여자고졸생산직	155892	187002	20.0	154050	145597	150353	159098	184689	183276	190870	187509
장기 근속자	고졸사무직	210842	243955	15.7	200864	214806	205971	227844	256215	241509	234490	230739
	대학사무직	285594	317948	11.3	300222	232731	342026	233261	344681	296182	327158	268235
	남자고졸생산직	417010	505449	21.1	430848	379224	396662	438103	511648	464252	493433	535649
	고졸사무직	547668	631947	15.3	558518	520840	531758	568680	615653	585324	635963	689893
	대학사무직	882629	901806	2.1	856841	974164	910365	744205	901876	889087	853774	965974

자료 : 〈표 1〉과 동일.

〈표 6〉 임금수준의 비교

(단위 : 지수)

	1986			1987				
	내 수	내수위주	수출위주	내 수	내수위주	수출위주		
							내 수	내수위주
단기 근속의 젊은 노동자	남자고졸생산직	100	97.3	98.3	86.0	97.3	100.9	86.8
	고졸사무직	100	120.4	118.7	122.7	79.4	109.1	86.1
	대학사무직	100	160.5	105.1	85.8	92.7	93.4	87.6
	여자고졸생산직	100	94.5	97.6	103.2	99.2	103.4	101.6
장기 근속자	고졸사무직	100	107.0	102.5	113.4	94.3	91.5	90.0
	대학사무직	100	77.5	113.9	77.7	85.9	94.9	77.8
	남자고졸생산직	100	88.0	92.1	101.7	90.7	96.4	104.7
	고졸사무직	100	93.2	95.2	101.8	95.1	103.3	112.1
	대학사무직	100	113.7	106.3	86.9	98.6	94.7	107.1

자료 : 〈표 1〉과 동일.

< 표 7 >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인격자본속성 및 기타성격, 1986.

	평균임금 ¹	평균근로시간수	임금근로자의 비중 ²	학 력 ²		경력및근속년수		여성의 비중 ²	생산직 비중 ²	대기업 근로자의 비중 ²	
				중졸이하	고졸	평균경력년수	평균근속년수				
내수산업의 고임금근로자	325940	250.7	92.1	32.7	52.6	10.2	5.8	4.9	19.9	66.0	71.2
내수산업의 저임금근로자	88738	245.1	7.9	49.1	50.0	0.1	1.3	1.1	62.2	74.0	72.7
내수위주산업의 고임금근로자	316521	251.3	94.2	32.3	52.1	11.7	5.1	4.5	26.3	64.4	83.4
내수위주산업의 저임금근로자	95695	224.5	5.8	44.7	54.6	0.0	0.7	0.6	72.7	94.2	68.2
수출위주산업의 고임금근로자	277626	258.3	91.7	41.2	49.8	6.4	4.1	4.0	32.4	78.7	81.3
수출위주산업의 저임금근로자	92609	235.1	8.3	47.0	52.7	0.0	0.5	0.6	60.5	94.9	54.5
수출산업의 고임금근로자	220561	250.4	85.5	43.2	50.9	3.3	3.6	2.9	55.9	86.1	80.8
수출산업의 저임금근로자	93783	225.7	14.5	64.2	35.2	0.1	1.3	0.9	80.1	97.6	72.5

주 1) 단위 : 원 2) 단위 : %
자료 : < 표 1 > 과 동일.

< 표 8 >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인격자본속성 및 기타성격, 1987.

	평균임금 ¹	평균근로시간수	임금근로자의 비중 ²	학 력 ²		경력및근속년수		이성의 비중 ²	생산직 비중 ²	대기업 근로자의 비중 ²	
				중졸이하	고졸	평균경력년수	평균근속년수				
내수산업의 고임금근로자	363340	234.9	98.0	29.6	54.9	11.1	5.5	4.9	23.7	67.9	71.0
내수산업의 저임금근로자	87496	203.1	2.0	35.7	62.0	0.8	1.1	0.9	56.6	91.5	68.3
내수위주산업의 고임금근로자	344202	235.5	96.9	31.3	53.9	11.6	5.0	4.5	29.5	69.0	79.0
내수위주산업의 저임금근로자	88804	192.2	3.1	45.2	54.5	0.0	1.3	1.0	67.6	91.6	79.9
수출위주산업의 고임금근로자	316859	242.6	98.0	36.2	56.3	0.4	4.3	3.9	34.5	80.8	78.8
수출위주산업의 저임금근로자	81111	176.0	2.0	39.8	58.7	0.8	1.2	1.0	60.2	93.8	75.4
수출산업의 고임금근로자	262441	239.0	96.4	41.8	52.2	3.2	3.6	3.3	57.8	85.6	77.6
수출산업의 저임금근로자	88029	197.8	3.6	67.5	32.0	0.07	0.9	0.7	80.4	95.7	62.3

주 1) 단위 : 원 2) 단위 : %
자료 : < 표 1 > 과 동일.

(단위 : %)

<표 9> 노동생산성과 임금상승률

	전	체	내	수	내수위주	수출위주	수	출
86-87 부가가치상승률	18.18		14.70		15.41	11.55	26.70	
87-88 부가가치상승률	18.71		13.25		26.35	20.04	20.93	
86-87 임금상승률	14.68		14.13		15.77	14.68	14.86	
87-88 임금상승률	15.78		15.64		15.75	15.51	16.08	
86-87 생산직 임금상승률	16.51		15.89		19.60	16.05	15.97	
87-88 생산직 임금상승률	17.25		17.12		17.75	16.67	17.42	
86-87 사무직 임금상승률	11.84		11.55		11.26	12.63	12.17	
87-88 사무직 임금상승률	13.30		13.30		13.24	12.78	13.55	

자료 : 「86-87-88 기업체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단위 : 지수)

<표 10> 직종별·학력별 임금격차

	86	87	86				87				
			내수	내수위주	수출위주	수출	내수	내수위주	수출위주	수출	
											수
단기근속의 젊은 노동자	남자고졸생산직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고졸사무직	147.5	127.2	124.7	154.3	150.5	177.9	129.5	105.6	140.0	128.5
	대졸사무직	211.4	182.9	186.9	308.3	199.3	186.4	181.1	172.6	167.6	182.9
	여자고졸생산직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고졸사무직	135.3	130.4	130.4	147.6	137.0	143.3	138.8	131.8	122.9	123.0
장기근속자	대졸사무직	183.2	170.0	194.9	159.9	227.5	146.7	186.7	161.6	171.4	143.2
	남자고졸생산직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고졸사무직	131.3	125.0	129.6	137.3	134.1	129.8	120.3	126.1	128.9	128.8
대졸사무직	211.7	178.4	198.9	256.9	229.6	169.9	176.3	191.5	173.0	180.3	

자료 : <표 1> 과 동일.

(단위 : 지수)

<표 11> 성별 임금 격차

	86				87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단기근속의	84.3	81.0	79.5	77.1	78.9	95.4	78.7	79.0	90.3
젊은노동자	77.3	83.1	83.1	73.8	71.7	76.8	98.3	69.4	86.5
	73.1	75.3	82.9	40.0	89.8	75.1	73.7	80.8	70.7

주. 여자고졸생산직은 남자고졸생산직을 기준(100)으로한 비율
 여자고졸사무직은 남자고졸사무직을 기준(100)으로한 비율
 여자대졸사무직은 남자대졸사무직을 기준(100)으로한 비율
 자료 : <표 1> 과 동일.

<표 13> 노동시간

	86				87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전	250.3	236.7	250.3	246.9	234.3	234.2	241.3	237.6
남자생산직	261.8	248.3	262.5	268.9	246.4	249.8	250.5	248.4
여자생산직	249.0	235.8	250.8	247.2	235.4	231.8	237.3	236.3
남자사무직	221.7	211.9	221.8	224.7	210.5	207.5	218.6	215.2
여자사무직	224.5	210.5	222.2	224.7	206.9	211.8	210.5	215.7

자료 : <표 1> 과 동일.

〈표 12〉 보충사의 연령별 숫자 및 구성비, 1986.

남자생신력

	숫자		구성비 ¹⁾		내 수		구성비		내 수 위 주		구성비		수 출 위 주		구성비		수 출	
	숫자	구성비 ¹⁾	숫자	구성비	숫자	구성비	숫자	구성비	숫자	구성비	숫자	구성비	숫자	구성비	숫자	구성비	숫자	구성비
19세 이하	2077	4.7	590	17.7	248	3.7	424	4.9	815	6.8								
20 - 24 세	6929	15.8	2468	14.5	1054	15.7	1317	15.4	2090	17.6								
25 - 29 세	13365	30.6	4781	28.2	1957	29.2	2774	32.5	3853	32.5								
30 - 34 세	9019	20.6	3953	23.3	1390	20.8	1800	21.1	2236	18.8								
35 - 39 세	5903	13.5	2357	13.9	933	14.0	1239	14.5	1370	11.5								
40 - 49 세	5497	12.6	2431	14.3	934	13.9	863	10.1	1269	10.7								
50 - 59 세	823	1.8	360	2.1	164	2.4	96	1.1	203	1.7								
진 체	43610	100	16940	100	6678	100	8512	100	11830	100								

남자사망률

	숫자		구성비 ¹⁾		내 수		구성비		내 수 위 주		구성비		수 출 위 주		구성비		수 출	
	숫자	구성비 ¹⁾	숫자	구성비	숫자	구성비	숫자	구성비	숫자	구성비	숫자	구성비	숫자	구성비	숫자	구성비	숫자	구성비
19세 이하	100	0.6	50	0.7	22	0.6	18	2.4	10	0.3								
20 - 24 세	743	4.7	321	4.6	145	4.2	124	4.9	53	1.8								
25 - 29 세	5073	32.1	2213	31.8	1039	30.4	877	34.9	944	33.4								
30 - 34 세	4391	27.8	1831	26.3	1026	30.0	688	27.3	846	30.0								
35 - 39 세	2621	16.6	1107	15.9	597	17.4	412	16.4	505	17.9								
40 - 49 세	2393	15.1	1057	16.6	501	14.6	346	13.7	389	13.8								
50 - 59 세	471	2.9	269	3.8	83	2.4	46	18.3	73	2.5								
진 체	15792	100	6944	100	3409	100	2506	100	2814	100								

주 1) 구성비는 %임.

자료 : 〈표 1〉과 동일.

< 표 14 > 장시간 근로자, 1986.

	평균근로 시간 수	평균임금	장시간노동 자의 비중	학 력		경력및근속년수		생산직의 비중	대기업근로 자의 비중	
				중졸이하	고 졸	대 출	평균경력 년수			평균근속 년수
내수산업의 非장시간근로자	202.4	377621		26.1%	51.0	17.2	5.7	5.0	51.5%	68.1%
내수산업의 장시간근로자	281.5	261449	62.5	39.3	53.4	4.5	5.2	4.4	76.6	73.5
내수위주산업의 非장시간근로자	212.5	401219		22.7	50.1	21.8	4.7	4.2	43.4	81.8
내수위주산업의 장시간근로자	277.9	230408	61.2	40.8	53.9	3.0	5.0	4.4	83.2	83.1
수출위주산업의 非장시간근로자	208.9	301592		35.4	47.6	13.4	4.2	4.3	67.6	77.2
수출위주산업의 장시간근로자	283.6	239804	65.6	45.4	51.5	1.6	3.6	3.5	87.3	80.2
수출산업의 非장시간근로자	202.7	228988		41.0	50.1	5.7	3.3	2.5	80.2	74.6
수출산업의 장시간근로자	275.3	184850	63.2	49.6	47.8	1.0	3.3	2.8	92.7	82.9

자료: < 표 1 > 과 동일

주: 제조업 월근로시간 86년 237.7시간, 87년 234.6시간의 평균근로시간 236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장시간, 非장시간으로 구분하였다.

< 표 15 > 노동의 공급탄력성, 1986-1987.

	86-87				86-87			
	내	수	내수위주	수출위주	내	수	내수위주	수출
전	-0.311	-0.434	-0.633	-0.349	-0.162			
생산직	-0.233	-0.374	-0.261	-0.293	-0.075			
사무직	-0.247	-0.380	-0.265	-0.276	-0.212			
남자	-0.661	-0.552	2.587	-0.088	-0.163			
여자	-0.384	-0.274	-0.459	-0.611	-0.704			

주 1) 공급탄력성은 $\frac{1987 \text{ 노동시간} - 1986 \text{ 노동시간}}{(87 \text{ 노동시간} - 86 \text{ 노동시간}) / 2} \div \frac{1987 \text{ 임금} - 1986 \text{ 임금}}{(87 \text{ 임금} - 86 \text{ 임금}) / 2}$ 로 계산되었다.

자료: < 표 1 > 과 동일.

<표 16> 이직율

(단위 : %)

	전		내		내수위주		수출위주		수	
	체	수	체	수	체	수	체	수	출	율
86년 이직율	46.3	39.6	37.5	47.5	47.5	59.1				
87년 이직율	40.2	37.7	33.1	37.6	37.6	48.2				
88년 이직율	36.8	28.4	29.7	34.8	34.8	52.5				

주 1) 이직율은 각년도의 이직자수 / 각 년도의 근로자총수 × 100 으로 계산되었다.
 자료 : 「 86-87-88 기업체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부표 1> 단기근속의 젊은 남성노동자의 임금체계

	1987		내수산업		내수위주산업		수출위주산업		수출산업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남자 고졸 생산직										
총 임 금	301464	100	306208	100	304549	100	321276	100	274896	100
정 액 급여	184937	61.3	185921	60.7	187026	61.4	193757	60.3	174280	63.4
초 과 급여	70555	23.4	66922	21.8	71715	23.5	79378	24.7	67222	24.5
특 별 급여	45872	15.2	53364	17.4	45807	15.0	47674	14.8	33392	12.1
남자 고졸 사무직										
총 임 금	335835	100	340920	100	277842	100	416872	100	308190	100
정 액 급여	232157	69.1	244998	71.8	204429	73.6	246526	59.1	219180	71.1
초 과 급여	42148	12.5	31212	9.1	32005	11.5	78907	18.9	41343	13.4
특 별 급여	61529	18.3	64709	19.0	41407	14.9	91438	21.9	47665	15.4
남자 대졸 사무직										
총 임 금	450543	100	459113	100	435843	100	451313	100	406246	100
정 액 급여	339673	75.4	339926	74.0	341773	78.4	346451	76.8	377949	80.7
초 과 급여	28325	6.3	25738	5.6	33943	7.8	46667	10.3	26555	6.5
특 별 급여	82545	18.3	93449	20.3	61125	13.8	58194	12.9	51741	12.7

단 기 근 속 의 젊 은 노 동 자

〈부표 2〉 단기간속의 젊은 여성노동자의 임금체계

	1987		내수산업		내수위주산업		수출위주산업		수출산업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여자 고졸 생산직										
총 임 금	230273	100	230019	100	223886	100	237133	100	229774	100
정액 급여	147264	63.9	143258	62.3	149855	66.9	146186	61.6	148841	64.6
초과 급여	43265	18.8	45330	19.7	40609	18.1	46263	19.5	42256	18.4
특별 급여	39738	17.2	41431	18.0	33421	14.9	44683	18.8	39028	17.0
여자 고졸 사무직										
총 임 금	269163	100	276672	100	270115	100	264321	100	258252	100
정액 급여	191926	71.3	203738	73.6	188109	69.6	181941	68.8	181036	70.1
초과 급여	25208	9.4	20456	7.4	28606	10.6	29830	11.3	27512	10.7
특별 급여	52029	19.3	52476	18.9	53400	19.8	52549	19.9	49703	19.2
여자 대졸 사무직										
총 임 금	332929	100	362083	100	300469	100	346430	100	282216	100
정액 급여	265657	79.8	276089	76.2	258440	86.0	275542	79.5	242546	85.9
초과 급여	14980	4.5	17402	4.8	4287	1.4	19272	5.5	13980	4.9
특별 급여	52290	15.7	68591	18.9	37741	12.5	51616	14.9	25688	9.1

단 기 간 속 의 젊 은 노 동 자

<부표 3 > 정기간축자의 임급체계

	1987		내 수 산 업		내수위수산업		수출위수산업		수 출 산 업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남자 고용 생산적										
총 임 금	636623	100	622982	100	600034	100	646931	100	685969	100
정액급여	360489	56.6	368827	59.2	329143	54.9	357693	55.3	369254	53.8
초과급여	131173	20.6	111334	17.9	135781	22.6	153497	23.7	150320	21.9
특별급여	144959	22.8	142821	23.0	135109	22.5	135740	21.0	166364	24.2
남자 고용 사무직										
총 임 금	683696	100	660870	100	646765	100	680330	100	751431	100
정액급여	469250	68.6	455317	68.9	439703	68.0	475782	70.0	509393	67.8
초과급여	58552	8.6	45216	6.8	61440	9.5	84049	12.3	61537	8.2
특별급여	162696	23.8	160335	24.2	145621	22.5	160180	23.5	180500	24.0
남자 대졸 사무직										
총 임 금	342669	100	949305	100	912531	100	908403	100	1014314	100
정액급여	680024	72.1	675289	71.1	685724	75.1	635609	70.0	715901	70.6
초과급여	40862	4.3	47428	5.0	23443	2.6	54629	6.0	48339	48.1
특별급여	221782	23.5	226586	23.9	203363	22.3	218165	24.0	250073	24.6

〈부표 4〉 노동자의 연령별 숫자 및 구성비, 1987.

남자 생산직	1987		내 수		내 수 위주		수출 위주		수 출	
	숫자	지수	숫자	지수	숫자	지수	숫자	지수	숫자	지수
	19세 이하	1326	2.8	302	1.7	171	2.3	381	3.9	472
20 - 24 세	5939	12.9	2033	11.8	937	12.7	1319	13.5	1650	14.1
25 - 29 세	14353	31.2	4778	27.7	2130	28.9	3573	36.6	3872	33.1
30 - 34 세	10223	22.2	3981	23.1	1548	21.0	2072	21.2	2622	22.4
35 - 39 세	6456	14.0	2625	15.2	1139	15.4	1231	12.6	1461	12.5
40 - 49 세	6601	14.3	2986	17.3	1190	16.1	1047	10.7	1378	11.8
50 - 59 세	1094	2.3	500	2.9	249	3.3	134	1.3	211	1.8
전 체	45990	100	17199	100	7364	100	9751	100	11662	100

남자 사 무 직

19세 이하	66	0.4	35	0.4	6	0.1	8	0.3	17	0.5
20 - 24 세	687	4.2	319	4.3	125	3.7	104	4.5	139	4.5
25 - 29 세	5020	31.2	2308	31.2	1058	31.6	726	31.8	928	30.2
30 - 34 세	4601	28.6	2187	29.5	951	28.4	604	26.4	859	28.0
35 - 39 세	2680	16.6	1143	15.4	602	17.9	408	17.8	527	17.1
40 - 49 세	2552	15.8	1140	15.4	541	16.1	368	16.1	503	16.4
50 - 59 세	475	2.9	257	3.4	64	1.9	63	2.7	91	2.9
전 체	16079	100	7385	100	3346	100	2275	100	3059	100

<표 5 > 생신적 노동력의 연령-임금표, 1986.

남자 생산직	1986		내		수		내수 위주		수출 위주		수	
	금액	지수	금액	지수	금액	지수	금액	지수	금액	지수	금액	지수
19세 이하	186,886	57.9	151,271	59.9	140,235	61.5	127,292	52.0	130,446	61.2	130,446	61.2
20 - 24 세	183,552	77.9	195,944	77.6	185,680	81.4	186,625	76.4	165,908	77.9	165,908	77.9
25 - 29 세	235,941	100	252,599	100	227,950	100	244,462	100	213,194	100	213,194	100
30 - 34 세	290,684	123.4	310,213	122	271,649	119	294,010	120	268,460	126	268,460	126
35 - 39 세	331,354	140.9	354,639	140	300,481	132	331,617	136	312,173	146	312,173	146
40 - 49 세	354,575	150.6	388,546	154	342,744	150	365,230	159	290,960	137	290,960	137
50 - 59 세	375,211	159.6	435,691	173	345,011	151	398,118	163	281,520	132	281,520	132

여자 생산직

19세 이하	127,478	78.4	131,371	77.4	123,875	72.8	132,490	70.5	125,372	80.3	125,372	80.3
20 - 24 세	152,792	93.8	154,068	90.7	146,297	85.9	154,839	82.5	153,014	98.0	153,014	98.0
25 - 29 세	162,771	100	169,746	100	170,150	100	187,795	100	156,146	100	156,146	100
30 - 34 세	148,884	91.4	145,689	85.8	151,086	88.8	173,519	92.4	142,943	91.5	142,943	91.5
35 - 39 세	148,707	91.4	158,014	93.1	141,917	83.4	166,844	88.9	139,893	88.6	139,893	88.6
40 - 49 세	159,216	98.1	191,490	113	153,063	89.9	178,116	94.9	141,107	99.4	141,107	99.4
50 - 59 세	162,151	100	171,188	101	144,352	84.8	162,949	140	143,726	92.1	143,726	92.1

〈부표 6〉 사무직 노동자의 연령·임금표, 1987.

남자 사무직	1986				내 수		내 수 위주		수출 위주		수 출	
	숫 자	지 수	숫 자	지 수	숫 자	지 수	숫 자	지 수	숫 자	지 수	숫 자	지 수
19세 이하	212,266	55.8	213,729	58.3	204,650	50.4	191,529	48.4	259,032	69.9		
20 - 24 세	297,313	78.2	280,709	76.6	332,834	82.0	305,040	77.0	292,225	78.9		
25 - 29 세	380,349	100	366,366	100	406,196	100	395,884	100	370,247	100		
30 - 34 세	509,967	133.9	474,706	129.6	602,870	148.4	496,019	125.3	484,953	131.0		
35 - 39 세	650,400	171.1	639,671	174.6	741,242	182.5	616,637	155.8	594,074	160.5		
40 - 49 세	715,294	188.2	731,547	199.7	741,808	182.7	668,373	168.8	674,540	182.2		
50 - 59 세	737,222	193.9	763,161	208.3	758,900	186.9	642,279	162.3	676,817	182.3		

여자 사무직

19세 이하	164,646	63.3	165,635	65.2	185,399	75.1	159,047	58.0	153,262	56.2		
20 - 24 세	212,086	81.9	205,124	80.7	214,976	87.1	210,975	76.9	221,915	81.4		
25 - 29 세	259,257	100	254,088	100	246,852	100	274,152	100	272,570	100		
30 - 34 세	317,616	122.4	390,261	153.6	244,644	99.1	180,576	65.9	309,814	113.7		
35 - 39 세	309,159	119.3	336,748	132.6	406,820	164.8	237,349	86.6	322,355	118.3		
40 - 49 세	270,702	104.2	311,656	122.7	240,616	97.5	219,842	80.2	273,260	100.3		
50 - 59 세	412,619	159.1	426,158	168.0	240,099	97.2	196,809	71.8	566,666	207.9		

<부표 7> 생산직 노동자의 연령 - 임금표, 1987.

남 자 생 산 직	1987		내수(Expord=1)		내수위수 (Ex=2)		수출위수 (Ex=3)		수출 (Ex=4)	
	금액	지 수	금액	지 수	금액	지 수	금액	지 수	금액	지 수
19세이하 (1719)	167,655	57.4	180,924	62.3	158,771	57.6	170,373	52.8	160,190	58.6
20 - 24세 (2024)	225,798	77.3	237,010	81.6	229,588	83.3	235,396	73.0	202,158	74.0
25 - 29세 (2529)	291,604	100	290,578	100	275,408	100	322,545	100	273,229	100
30 - 34세 (3034)	345,654	118.6	354,046	122	324,382	118	360,905	112	333,415	121
35 - 39세 (3539)	406,294	139.5	412,705	142	381,547	139	430,830	134	393,396	144
40 - 49세 (4049)	436,108	149.8	435,435	150	455,663	165	432,830	134	423,171	155
50 - 59세 (5059)	454,161	156.0	446,734	154	511,267	186	436,713	135	415,451	152

여 자 생 산 직

19세 이하	158,104	77.8	153,457	73.9	159,167	79.6	162,864	80.2	157,216	77.1
20 - 24세	188,630	92.6	184,927	89.0	185,143	92.6	193,531	95.3	189,063	92.7
25 - 29세	203,866	100	207,713	100	199,893	100	203,194	100	203,865	100
30 - 34세	183,332	90.1	177,313	85.4	182,968	91.5	196,604	96.8	181,507	89.1
35 - 39세	187,564	92.1	178,764	86.0	190,019	95.1	198,677	97.8	187,664	91.6
40 - 49세	189,821	93.1	188,395	90.7	190,514	95.3	209,517	103	184,014	90.3
50 - 59세	176,814	86.7	177,583	85.0	161,755	80.9	210,587	104	173,339	85.0

〈부표 8〉 사무직 노동자의 연령 - 임금표,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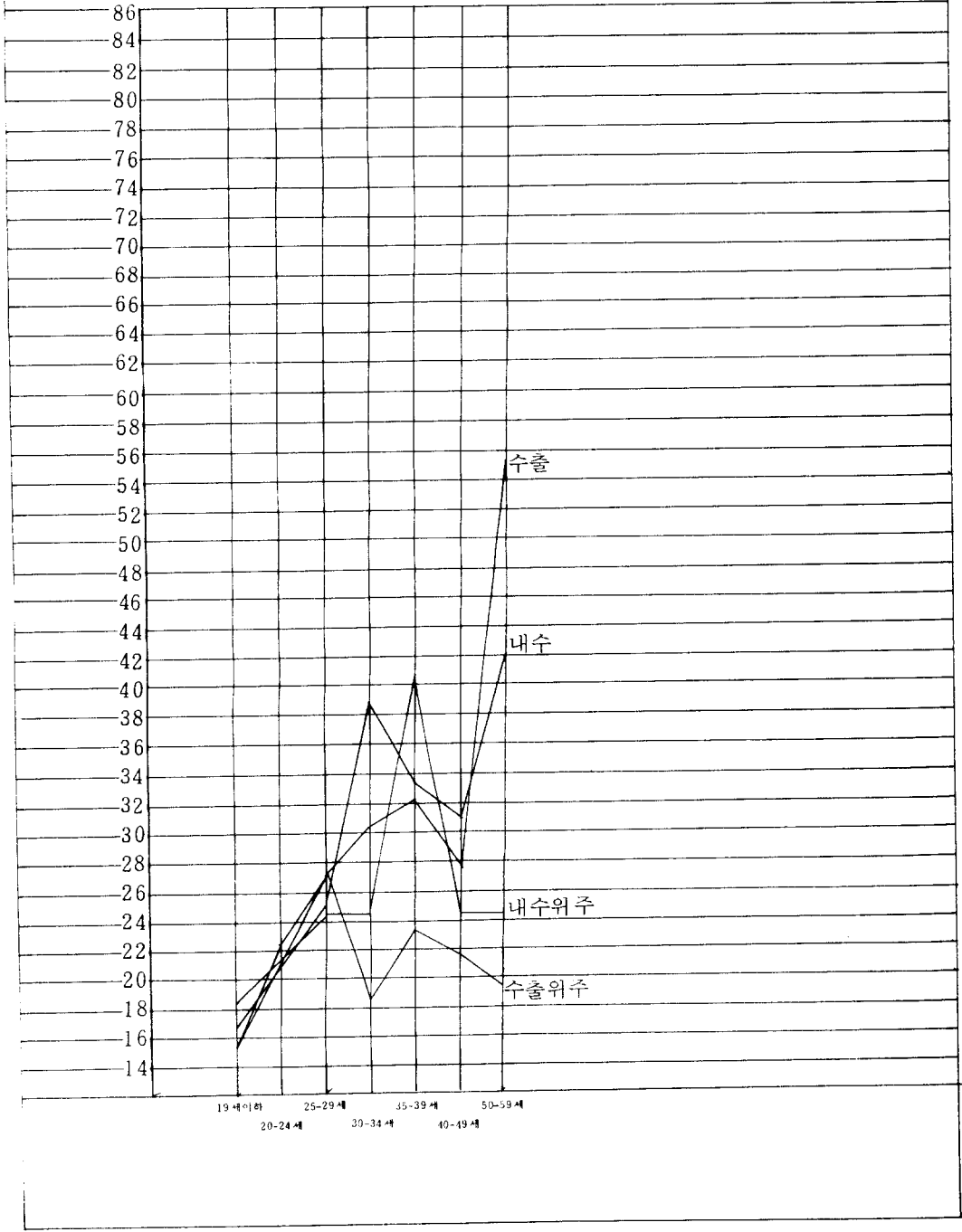
남자 사무직	1987				내 수				내 수 위 주				수 출 위 주				수 출	
	숫 자		지 수		숫 자		지 수		숫 자		지 수		숫 자		지 수		숫 자	
	숫 자	지 수	숫 자	지 수	숫 자	지 수	숫 자	지 수	숫 자	지 수	숫 자	지 수	숫 자	지 수	숫 자	지 수	숫 자	지 수
19세 이하	294,933	72.6	284,375	67.9	201,479	50.1	218,769	54.0	307,849	81.6								
20 - 24 세	316,707	78.0	341,168	87.5	281,560	70.1	334,542	82.6	278,834	73.9								
25 - 29 세	405,588	100	418,881	100	401,694	100	404,965	100	377,451	100								
30 - 34 세	524,797	129.4	523,256	124.9	529,716	131.9	526,340	130.0	522,189	138.3								
35 - 39 세	669,096	165.2	675,578	161.3	681,659	169.7	617,931	152.6	680,301	180.3								
40 - 49 세	799,234	197.2	808,369	193.0	814,446	202.8	741,659	183.2	804,291	113.1								
50 - 59 세	821,799	202.7	849,160	202.7	846,325	210.7	854,449	211.0	704,676	186.7								

여자 사무직

19세 이하	190,398	63.3	200,392	64.1	184,331	62.0	176,540	58.4	189,648	66.4
20 - 24 세	245,678	81.7	257,857	82.5	243,575	81.9	237,202	78.5	231,680	81.1
25 - 39 세	300,697	100	312,595	100	297,213	100	302,141	100	285,417	100
30 - 34 세	396,428	132.0	430,094	137.6	354,370	119.2	323,693	107.1	411,495	144.1
35 - 39 세	445,224	111.7	416,629	133.3	245,233	82.5	243,529	80.6	333,284	116.7
40 - 49 세	418,537	139.3	642,891	205.7	199,137	66.9	265,987	88.0	292,617	102.5
50 - 59 세	366,027	122.0	450,998	144.3	257,854	86.7	247,732	82.0	323,316	1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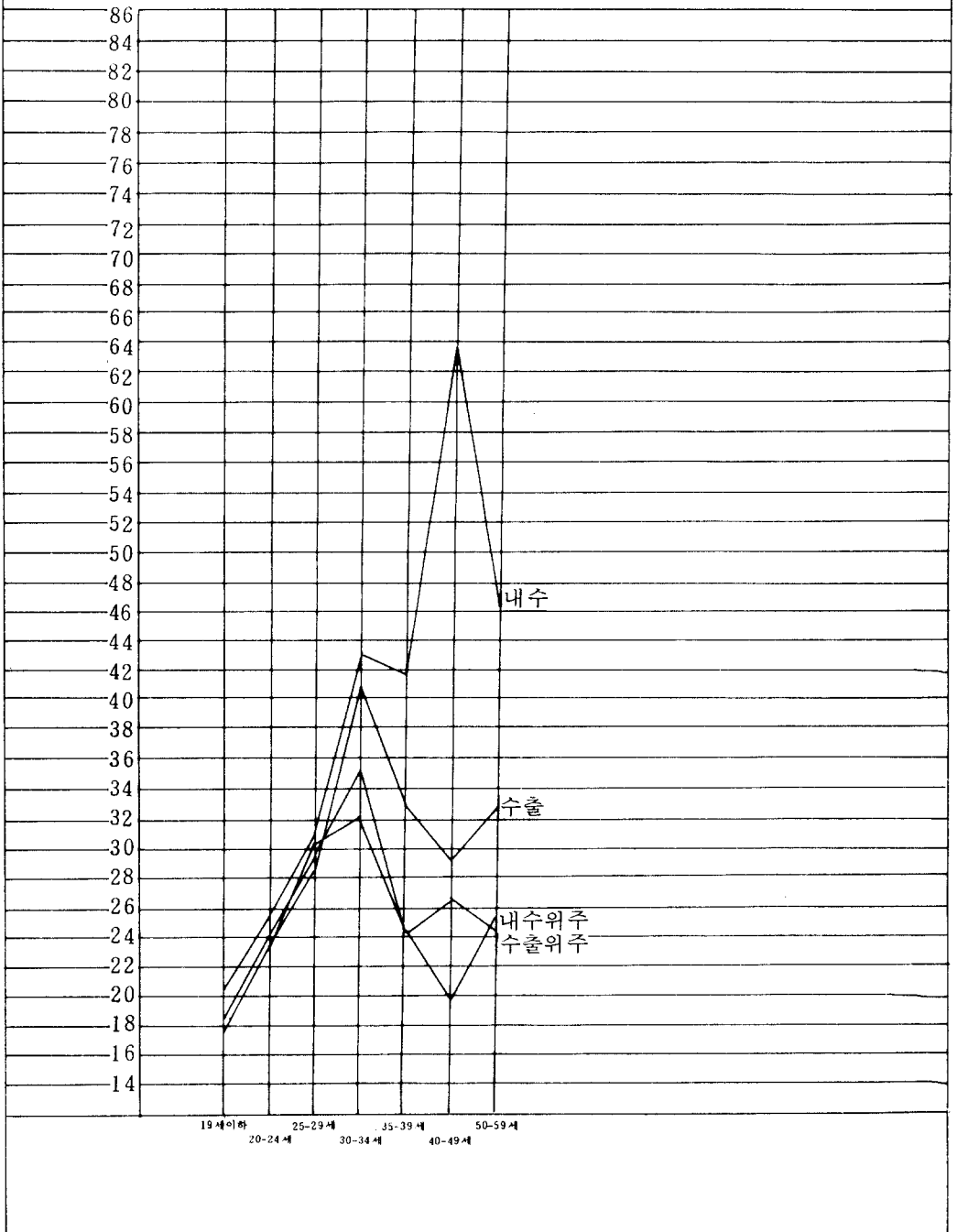
〈 부표 9 〉 여자사무직의 연령 - 임금곡선, 1986

(단위 : 만원)



〈 부표 10 〉 여자사무직의 연령 - 임금곡선, 1987

(단위 : 만원)



〈부표 11〉 장시간 근로자, 1987.

	평균근로 시간수	평균임금	장 시 간 노동자의 비 중	학 력			경력및근속년수		생산력의 비 중	대 기 업 근로자의 비 중
				중졸이하	고졸	대 졸	평균경력 년수	평균근속 년수		
내수산업의 非장시간근로자	203.8	403,671		20.3%	58.1%	16.3%	5.5	4.9	56.7%	71.4%
내수산업의 장시간근로자	274.7	297,256	45.3%	42.2	51.0	3.9	5.4	4.7	83.9	70.5
내수위주산업의 非장시간근로자	203.4	366,466		23.0	53.2	19.7	4.7	4.3	55.2	75.9
내수위주산업의 장시간근로자	268.1	303,268	50.2	41.4	54.8	2.1	5.2	4.7	85.7	82.5
수출위주산업의 非장시간근로자	208.0	333,487		32.2	55.2	8.7	4.2	3.9	72.9	74.1
수출위주산업의 장시간근로자	265.3	296,951	61.3	39.3	57.2	1.2	4.4	3.9	86.9	82.2
수출산업의 非장시간근로자	208.8	280,968		38.0	52.5	5.7	3.6	3.3	78.1	74.5
수출산업의 장시간근로자	263.4	234,023	57.4	47.0	50.6	0.8	3.5	3.1	93.1	79.5

주. 제조업 월근로시간 86년 237.7시간, 87년 234.6시간의 평균 근로시간 236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장시간, 非장시간으로 구분하였음.

〈부표 12〉 임금수준

	86	87	86				87			
			내 수	내수위주	수출위주	수 출	내 수	내수위주	수출위주	수 출
진 체	260,942	311,041	307,266	303,709	262,326	202,162	357,840	336,377	312,262	256,237
남자생산직	264,775	332,435	291,515	256,416	266,835	230,549	345,300	330,757	340,158	308,069
여자생산직	146,326	182,429	153,870	142,746	150,607	143,839	181,705	182,020	186,898	181,459
남자사무직	518,284	554,991	510,713	577,352	496,150	486,473	561,584	559,675	538,925	545,935
여자사무직	220,183	260,396	216,002	218,420	213,420	230,753	280,416	248,462	245,864	246,501